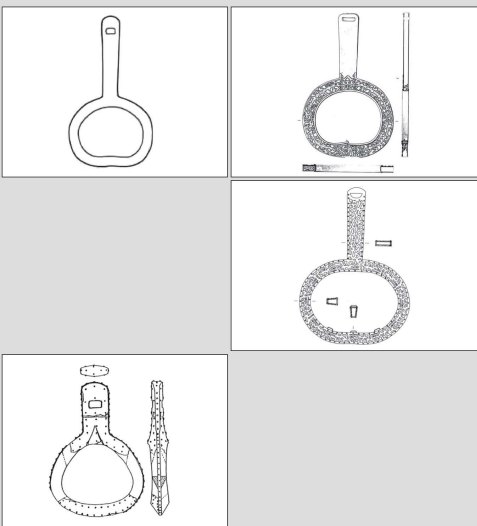




초기 등자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Early Stirrups in Ancient Northeast Asia

최병현
충실대학교

I. 머리말

II. 풍소불묘 등자설의 전개와 비판

III. 초기 단병등자와 장병등자의 발전

1. 중국 동북지방의 장병등자와 단병등자
2. 초기 단병등자와 장병등자의 발전
3. 초기 단·장병등자의 공존과 허구의 풍소불묘 등자설

IV.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의 연대와 성격

1.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
2. 평성 지경동 1호분 석실 구조와 공반유물의 검토
3.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의 연대와 성격

V.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와 그 성격

1. 출토 현황
2. 성격

VI. 목심등자 제작기법의 변화와 신라 초기 등자의 편년

1. 목심등자 제작기법의 변화
2. 신라 초기 등자의 편년

VII. 맺음말

국문 요약

중국 전연시기의 출현기 등자에서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등자를 살펴보면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는 서기 4세기부터 공존하면서 각각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단병등자의 발전과정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신라·가야고분에서 볼 수 있다. 전연시기 장병등자는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로 이어져 발전하였다.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는 원래 제작방법과 계보의 차이여서 '고식등자'와 '신식등자'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와 같은 구분은 처음부터 착각과 오류였다.

풍소불묘 등자설은 그러한 오류에서 출발하여 애초부터 근거가 없었고, 곧 그 허구도 드러났으나 학계의 일각에서는 고구려군 남정설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예 고정관념으로 굳혀 놓았다. 그러다보니 현재 학계의 신라·가야 고고학자료 편년에는 일반적으로 약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신라와 가야 고분의 연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신라토기와 신라등자를 편년하면

- 경주 월성로 가-31호분 출토 왜제토기와 일본 고분시대 土師器 연대관에 의한 신라 초기양식토기의 연대
- 신라 전기양식토기 성립기의 연대
- 중국 前燕시기 安養 孝民屯墓 및 朝陽 袁台子墓의 연대와 신라등자의 출현 연대
- 일본 고분시대 초기須惠器 TG232 형식의 연륜연대
- 중국 동북지방 및 고구려의 고분과 마구 자료로 교차편년된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
- 일본 고분시대 초기須惠器 TK73 형식의 연륜연대
- 北燕 馮素弗墓의 연대
- 일본 新開고분과 七觀고분의 연대

가 모두 정합성을 갖게 되어 한·중·일 고고학자료의 발전 과정과 상호 영향 관계가 무리 없이 이해된다.

주제어 : 고구려군 남정설, 馮素弗墓 등자설, 단병등자, 장병등자, 前燕, 北燕

I. 머리말

현재 학계의 신라·가야 고고학자료 편년에는 일반적으로 약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신라와 가야 고분의 연대도 연구자에 따라서는 약 50년 정도씩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연대 차이의 배경에는 이른 바 서기 400년 ‘高句麗軍 南征說’¹⁾이 있다. 고구려군 남정설을 전제하지 않은 편년에는 서기 400년 이전으로 약 50년 정도 올라가는 신라·가야 고고학자료의 연대가 고구려군 남정설을 전제로 한 편년에는 서기 400년 이후로 내려오고, 그 이후 자료의 연대도 연동하여 내려온다.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고구려의 금공품과 마구 등이 이입되어 한반도 남부지방의 고분 문화가 변동되었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인해 서기 400년 무렵 김해 대성동고분군 축조 중단과 금관가야 주력 세력의 일본열도 이주설로까지 확대된 이른 바 고구려군 남정설은 이제 학계 일각에서 한·일 고고학자료의 편년과 고분문화 해석의 움직일 수 없는 준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군 남정설을 성립시킨 배경에는 ‘馮素弗墓 鎧子說’이 있다. 서기 415년의 北燕 馮素弗墓에서 출토된 등자가 세계 최고의 실물 등자이며 한국과 일본의 輪鎧子是 모두 이로부터 발전한 것이라는 이른 바 풍소불묘 등자설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기승용 마구의 출현 시기를 그 이후로 묶어 고구려군 남정설의 단초를 연 것이다. 필자는 풍소불묘 등자설이 사실과 다름을 일찍부터 지적하여 온 바 있거니와(최병현 1983·1992) 사실 지금은 북연 풍소불묘 등자보다 훨씬 이전인 前燕 시기 등자 실물 여럿이 발표되어 그 근거 자체가 상실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학계의 일각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고수하면서, 고구려군 남정설과 함께 그 적용을 한국 삼국시대와 일본 고분시대 고고학자료 전반으로 확대하여 편년과 문화해석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고구려군 남정설 자체는 역사적 정황을 고고학자료 해석의 선형적 전제로 침소봉대한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어서 결국 徒勞에 불과할 비판에 힘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단초가 된 동아시아 등자 문제도 필자에게는 다시 거론하기도 거북스러운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풍소불묘 등자설을 전제로 한 한국 삼국시

1) 본고의 ‘고구려군 남정설’과 ‘풍소불묘 등자설’은 뒤에서 정의되듯이 집안 광개토대왕비 경자년조의 남정 기록 자체나 북연 풍소불묘에서 출토된 등자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개념상 꼭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용어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 써 왔으므로 본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겠다.

대와 일본 고분시대 고고학자료의 편년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한, 고대 등자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이를 외면하고 학계의 편년이 일치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필자는 최근 신라토기의 형식분류를 통해 신라 고고학자료에 대한 새로운 편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부득불 등자 문제를 재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전고(최병현 2013)에서는 서기 4세기 이후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에서 단병등자와 장병등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등자가 공존하였음을 나타내는 도표를 제시하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해 전고에서 명확하게 해두지 못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초기 등자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분명히 해 놓고자 한다. 여기서 초기 등자라 함은 중국 전연시기의 실물 등자에서부터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 등자까지를 가리킨다.

Ⅱ. 풍소불묘 등자설의 전개와 비판

먼저 ‘풍소불묘 등자설’의 등장과 그에 대한 비판을 연도순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小野山節(1966)-일본 新開古墳 등자를 ‘고식’=단병등자, 七觀古墳 등자를 ‘신식’=장병등자로 분류하여 등자의 2분 단계설 주장.

黎瑤渤(1973)-단병등자가 출토된 北燕 馮素弗墓 발굴 보고.

穴澤味光·馬目順一(1973)-415년의 풍소불묘 등자가 세계 최고의 등자 실물이며, 신라와 일본의 모든 輪鎧子は 이로부터 발전하였다고 주장.

小田富士雄(1979)-小野山와 穴澤의 주장을 근거로 등자가 출토된 한국 삼국시대 고분은 모두 415년 이후이며, 고구려 적석총인 칠성산 96호분은 5세기 전 반~중경이라고 주장.

최병현(1981·1983)-풍소불묘 이전부터 단병등자와 장병등자가 공존했으며, 풍소불묘 등자는 단병등자 중 발전된 형식이라 주장.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1983)-외작 長柄鎧子가 출토된 중국 安陽 孝民屯墓 발굴 보고.

穴澤啄光・馬目順一(1984)-초기등자의 병부가 장병에서 단병으로 짧아진다고 주장. 그러나 칠성산 96호분은 5세기 후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함.

遼寧省博物館文物隊 外(1984)-장병 雙鎧子가 출토된 朝陽 袁台子壁畫墓 발굴보고.

신경철(1985)-효민둔묘의 장병등자에서 병부가 단병으로 변한 윤부 도하트형 등자(A형)와 풍소불묘 등자를 조형으로 하는 윤부 삼각형 등자(B형)가 415년 전후 고구려를 경유하여 한반도에 도입되었으며, 그 중 윤부 도하트형 등자는 윤부 타원형의 장병등자로 발전했다고 주장. 小田의 칠성산 96호분 연대 지지.

穴澤啄光(1988)-원대자벽화묘는 전연의 용성시기(342~357), 효민둔묘는 鮮卑 모용씨 중원 진출(357) 직후로 추정. 원대자벽화묘와 효민둔묘 장병등자가 ‘현존 세계 최고의 등자 실물’이라고 수정.

신경철(1989)-원대자벽화묘의 윤부 삼각형 장병등자는 윤부 삼각형 등자(B형)가 4세기대에 A형 장병등자와 결합된 것이라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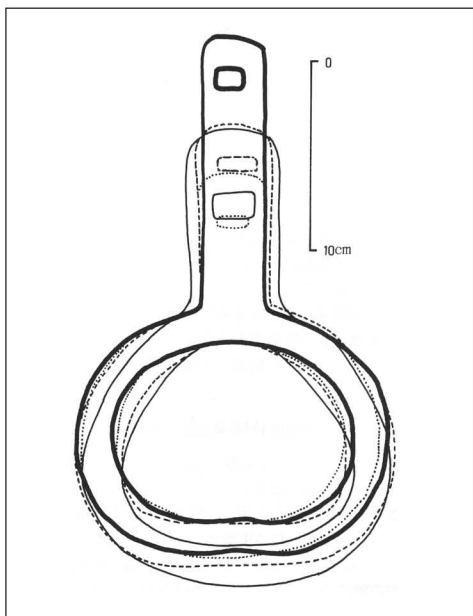
최병현(1992)-단병등자와 장병등자 4세기부터 공존 재확인.

田立坤(1991・2002)-효민둔묘는 352년 이후 하한 370년, 원대자벽화묘는 太和 원년(366) 가능성도 있으나 永和 10년(356)으로 연대 고정.

董高(1995)-선비와 고구려 등의 마구 편년안과 北票 北溝 8호묘 장병등자 발표.

이희준(1995)-윤부 형태가 다양한 여러 계보의 단병등자와 장병등자 공존 주장.

이상에서 보듯이 풍소불묘 등자설은 중국에서 풍소불묘 출토 단병등자가 공표되자 穴澤啄光가, 다만 일본의 단계적인 등자 도입 순서를 밝힌 小野山節의 2분 단계설을 단병등자에서 장병등자로의 발전설로 곡해하여(이희준 1995), 풍소불묘의 단병등자가 세계 최고의 등자 실물이며 한·일의 등자는 모두 이로부터 발전하였다고 확대 해석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효민둔묘의 외곽 장병등자가 발표되자 초기 등자의 병부가 장병에서 단병으로 짧아진다고 얼버무려 풍소불묘 등자설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으나(도면 1), 곧바로 또 원대자벽화묘의 장병 쌍등자가 발표되자 효민둔묘와 원대자벽화묘의 연대가 전연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풍소불묘 단병등자가 아니라 두 고분의 장병등자가 세계 최고라고 수정하면서 등자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을 다문 것이다. 한편 小田富士雄는 穴澤의 풍소불묘 등자설이 나오자 이를 이용하여 장병등자가 출토된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를 5세기로 내려놓고는 상



[도면 1] 穴澤·馬目の 초기등자 외형 비교

황이 변하자 그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穴澤는 小田를 의식해서인지 칠성산 96호분의 연대에 대해서만큼은 토를 달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小田富士雄의 칠성산 96호분 연대 비정 과정이다. 칠성산 96호분에서는 등자를 비롯한 마구 외에도 여러 가지 유물이 출토되었다(도면 2). 그 중에서도 연대 비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3점의 청동용기이다. 중국의 보고자들은 그 중 龍首柄鏃斗(도면 2의 상 4)를 湖北省 漢陽 蔡甸 1호 西晉墓 출토 초두, 南京市 鄧府山 서진묘 출토

초두와 비교하고, 또 칠성산 96호분 출토 靑銅鼎(도면 2의 상 6)과 같은 형식의 청동정이 공반된 우산 68호분의 銅洗(도면 2의 상 5)를 역시 湖北省 蔡甸 1호묘 동세와 비교하여,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를 4세기로 비정하였다(집안현문물보관소 1979).

이에 비해 小田(1979)는 먼저 중국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十字鈕靑銅盒(도면 2의 상 7)을 경주 서봉총의 十字鈕銀盒 등 신라의 늦은 시기 은제·청동제합과 관련시켜 분위기를 잡고는, 용수병초두도 중국에서 출토된 이른 시기 것이 아니라 원주 법천리, 경주 식리총 등 한국에서 출토된, 연대도 늦고 형식도 발달된 것들과만 비교하였다. 토기나 황유도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보고자들은 칠성산 96호분 출토 토기와 도기들을 집안 마선구 1호분 등 기존의 고구려 고분 출토품과 비교하였지만, 小田는 칠성산 96호분에서는 출토되지도 않은 고구려 토기 四耳壺의 대상과수를 부여와 공주 출토 늦은 시기 雙耳壺의 대상과수까지 연결시켜 놓고는 경주 금관총의 청동사이호로 결론을 끌어갔다. 그리고는 穴澤의 풍소불묘 등자설을 들어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는 415년의 풍소불묘보다 늦은 5세기 전반~중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小田는 언급 자체를 피했지만 칠성산 96호분의 청동정은, 필자가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최병현 1992), 중국의 한대 청동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용수병초두도 늦은 시기의 한국 출토 동진대 초두만이 아니라 중국의 보고자들과 같이 그 이전 시

기의 것들과도 비교되어야 했다. 중국의 초두에 대해서는 근년 박순발(2005)에 의해 자료집성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칠성산 96호분 출토 용수병초두는 그의 B5류로 조양 원대자벽화묘나 北票 喇嘛洞 M221호묘 출토품(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2002:78)과 가장 근사한 것이다. 칠성산 96호분의 十字鈕청동합도 경주 서봉총 출토 延壽銘은합이나 그 외 신라고분 출토 은제·청동제합으로 연대를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칠성산 96호분의 객관적인 연대 도출로 서봉총 은합의 ‘延壽元年辛卯’가 511년인지 451년인지, 아니면 한 갑자 더 올려 391년이 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어야 할 유물이다. 서봉총의 延壽銘은합이나 호우총의 乙卯年銘청동합은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신라로 전해진 것이어서, 이들이 묻힌 신라고분의 연대는 다만 이들의 하한연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小田는 그와 같이 칠성산 96호분의 청동기와 토기에 대해서는 늦은 시기 한국 출토 유물들과만 비교하고, 정작 상대 순서를 바꾸어 놓은 풍소불묘의 공반 유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면 2]에서 보듯이 그 중 청동용기는 모두 동진 후기의 청동기들이어서 칠성산 96호분 출토 청동기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두 유적의 청동기를 직접 비교하면 도저히 그 순서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설사 칠성산 96호분 청동기에 전세기구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칠성산 96호분 출토 청동기 전체, 그리고 같은 형식의 청동정을 공반한 우산 68호분의 청동기 전체를 일괄하여 긴 전세기구를 상정하지 않는 한 칠성산 96호분과 풍소불묘의 상대순서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출토 유물을 다른 유적의 늦은 형식은 물론 이른 형식과도 비교·검토하고, 상대선후 결정의 직접 대상인 풍소불묘의 공반유물과도 비교·검토하여 고고학자료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小田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은 외면하고 다만 풍소불묘 등자설만으로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아 버린 것이다.

이제 여기서 각도를 달리해 보면, 穴澤가 풍소불묘 등자가 공표되자 단병등자에서 장병등자로의 발전을 주장한 것은 小野山節의 단계 구분을 곡해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그가 곧바로 풍소불묘 등자를 세계 최고의 실물 등자라고 단정한 것이나, 小田가 이를 받아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를 풍소불묘보다 뒤로 내려놓아 버린 것은 곡해라기보다는 다분히 그들의 한국 고고학자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풍소불묘 등자 공표 이전에 이미 출토되어 있던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의 단병등자나 칠성산 96호분의 장병등자가 세계 최

고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연대가 일본의 등자 출현 연대보다 크게 앞서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만 등자 하나만으로 한국 삼국시대 고분문화의 상한선이 서기 400년무렵으로 묶여버린 穴澤-小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효민둔



[도면 2] 고구려 적석총과 풍소불묘 청동기(축소비율 다름)

묘와 원대자벽화묘 등자의 공표로 그들의 오류가 금방 드러나자 수습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고대 등자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을 다물면서도, 풍소불묘 이후로 내려놓은 칠성산 96호분의 연대에 대해서만큼은 또 토를 달아 놓은 것이라 하겠다.

신경철(1985·1989)의 주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 두 번에 걸친 그의 주장의 요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윤부 도하트형 등자(A형)는 장병이 단병이 되었다가 다시 장병이 되고, 윤부 삼각형 등자(B형)는 단병이 장병으로 절충되었다가 다시 단병이 되어 단병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효민둔묘와 원대자벽화묘 출토 장병 등자의 공표로 穴澤昧光의 풍소불묘 등자설이 이미 근거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역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한 데에는 다음의 까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가 그에 앞서 비추어 놓은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설(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애초에,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무장구, 마구, 금공품이 대부분 고구려계이며, 이들이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군의 남정을 계기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이입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광개토대왕비문의 고구려군 남정을 학계에 환기시킨 것은 최종규(1983)였다. 그는 필자가 신라 적석목곽분의 출현시기를 서기 4세기로 올린 것에 반대하며, 신라 적석목곽분이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고구려 적석총의 영향을 받아 5세기 초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구려계 문물의 이입설을 주장한 것이다. 풍소불묘 등자설이 이미 근거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신경철이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최종규의 그러한 주장을 복천동고분의 해석에 적용하면서부터 고구려군 남정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던 와중이었다.

둘째로 고구려 남정설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학계에 穴澤-小田 프레임을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穴澤의 풍소불묘 등자설이 나오자 이를 이용하여 장병등자가 출토된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를 풍소불묘보다 뒤로 내려 놓음으로써 穴澤의 풍소불묘 등자설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고구려까지 확대한 것은 小田였다. 신경철은 고구려군 남정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穴澤-小田 프레임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 신경철은 소멸되어 가던 풍소불묘 등자설을 소생시켜 이로써 한국 삼국시대 고고학자료의 편년과 해석을 고구려군 남정설에 묶어놓고, 穴澤-小田 프레임을 한·일 학계에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는 그 후 다시 前燕의 龍城시기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北票 北溝 M8호묘 출토 장병등

자도 소개되고(董高 1995), 이희준(1995)이 경주 황남대총 편년과 함께 중국과 한국의 등자에 대해 재론하여 서기 4세기부터 여러 계보의 단·장병등자가 공존하였음을 밝혔지만, 풍소불묘 등자설을 배경에 둔 고구려군 남정설을 추종하는 집단적인 순환논리의 반복에 가려지고 말았다.

Ⅲ. 초기 단병등자와 장병등자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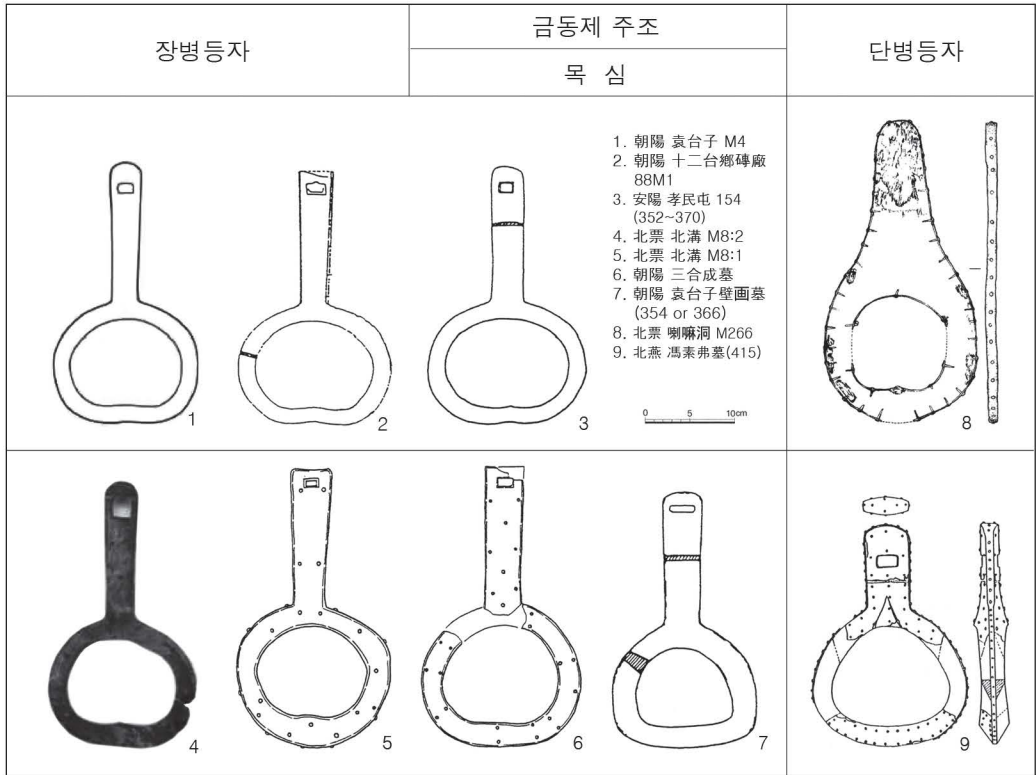
1. 중국 동북지방의 장병등자와 단병등자(도면 3)

중국에서는 그 후 朝陽 十二台鄉磚廠 88M1호묘와 三合成墓 출토 장병등자가 더 공표되었다(요령성문물연구소 외 1997, 于俊玉 1997). 또 최근에는 북표 북구 M8호묘의 또 다른 장병등자와 원대자 M4호묘의 장병등자가 우리 학계에 소개되었다(田立坤 2012)²⁾. 이들의 연대는 모두 4세기 중엽의 전연시기라는데 이견이 없으며, 그 중 일부는 전연의 용성시기 이전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견해는 있으나 전연시기보다 늦다는 주장은 거의 없다³⁾.

이제 앞서 언급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연시기 등자들을 살펴보면 모두 병부의 길이가 긴 장병등자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윤부 형태로는 윤부의 답수부가 반전된 타원형(도하트형)이 가장 많아 조양 원대자 M4호묘와 십이대향전창 88M1호묘, 안양 효민둔묘의 금동제 주조등자와 북표 북구 M8호묘 목심등자 중 1점이 이에 속하지만, 그 외 북표 북구 M8호묘 목심등자 1점(田立坤 2012:209)과 조양 삼합성묘 목심등자는 답수부에 반전이 없는 타원형이고, 원대자벽화묘 목심등자는 삼각형이다. 병부의 형태도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것, 위 아래가 거의 균일한 것이 있는가 하면, 병두도 아주 둥근 것, 완만하게 둥근 것과 직선적인 것이 있다. 병부와 윤부의 단면 형태도 梯形만이 아니라 다양하며, 재료도 금동

2) 田立坤(2012)은 북표 북구 M8호묘의 장병등자 2점을 소개하였으며, 그 중 그가 사진으로 소개한 M8:1호 등자는 董高(1995)가 도면으로 소개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등자의 윤부가 董高 논문의 도면에서는 원형에 가까우나 田立坤 논문의 사진에서는 이와 달리 타원형에 가깝다. 다만 도면과 사진 모두 윤부 하단 중앙이 두껍게 부풀어 있는 것은 같다.

3) 류창환(2012:158~160)은 원대자벽화묘를 4세기 3/4분기 초두라고 하고 효민둔 154호묘, 북표 북구 M8호묘, 십이대향전창88M1호묘, 삼합성묘는 이보다 약간 늦다고 하면서 도표의 4세기 4/4분기에 배치하고 있다.



[도면 3] 중국 동북지방 전연~북연시기 장병등자와 단병등자

제 주조품, 목심에 금속판을 씌운 것, 가죽을 씌운 것 등이다. 즉 병부가 장병이라는 것과 목심등자의 경우 부분이 아니라 전면에 금속판(원대자벽화묘 것은 가죽)을 씌웠다는 공통점⁴⁾ 외에 다른 속성들이 모두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는 초기 장병등자가 단일 계보가 아니며, 병부나 윤부 형태로 보아 최소 3개 이상의 계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단병등자는 장병등자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그 출토예가 희소하다. 풍소불묘 등자 외에는 다만 북표 喇嘛洞 M266호묘(요령성고고연구소 외 2004)에서 출토된 특이한 형태의 목심등자를 단병등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⁵⁾.

4) 田立坤(2012)에 의하면 북표 북구 M8:1호 등자는 안팎 측면과 전면만 동판을 씌우고 후면 동판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심에 금속판을 보강하는 방식은 뒤의 단병등자와는 다르다.

5) 이 등자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 田立坤(2012)은 3세기 말, 諫早直人(2012)은 4세기 중기의 전연시기, 桃崎祐輔(2006)는 436년 이전 북연시기 것으로 본다. 그러나 라마동 M266호분에서 출토된 운주 중에는 십이대향전창88M1호묘에서 출토된 특이한 운주가 포함되어 있는 등(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04)으로 보아 전연시기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등자는 병두가 둥근 짧은 병부의 폭이 대단히 넓고, 윤부는 원형에 가까운데, 병부와 윤부의 바깥 측면과 윤부 안쪽면에는 목심에 긴 동판을 못으로 박아 보강하였으나 윤부 바깥쪽 하부, 그리고 병부와 윤부의 전후면은 금속판으로 보강하지 않았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출토된 단병등자는 이것과 풍소불묘 등자의 2예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단병등자도 단일 계보가 아니었으며 윤부 형태도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목심 단병등자에서 주목되는 공통점은 모두 병두가 둥글고, 목심을 금속판으로 보강하였지만 목심 전면을 금속판으로 씌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이상과 같은 중국 동북지방 등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초 풍소불묘 등자설에서 지목된 등자의 고식 속성, 예컨대 윤부 삼각형, 단면 제형, 둥근 병두 같은 것이 장병등자와 단병등자 모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등자의 분류에서 제1 속성은 윤부가 아니라 병부라는 점이다. 즉 등자는 일단 병부에 따라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로 나누어지며, 윤부는 단병등자에도 장병등자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고 그 외 세부속성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제작방법에도 금속제 주조등자와 목심등자가 있었으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목심등자의 목심 제작기법도 단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田立坤 2012). 그러나 목심등자의 경우 장병등자는 모두 목심 전면에 금속판(원대자벽화묘 것은 가죽)을 씌운 반면, 단병등자는 전면이 아니라 취약부분만 금속판으로 보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⁶⁾.

이점은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 그리고 신라와 가야의 초기 단병등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이나 동래 복천동고분 등에서 출토된 신라·가야의 초기 단병등자들을 보아도 병부와 윤부 형태가 단일하지 않아 여러 계보의 것이 섞여 있다. 예컨대 동래 복천동 21·22호분(부산대학교박물관 1990)의 등자들이 그와 같은 실상을 잘 보여주는데, 이 고분에서는 윤부가 답수부의 반전이 있는 타원형(도하트형)인 것, 원형에 가까운 것, 삼각형으로 판단되는 것 등의 목심 단병등자가 함께 나왔다. 복천동 10·11호분(부산대학교박물관 1983)에서도 윤부 형태가 타원형으로 추정되는 것과 삼각형인 목심 단병등자가 함께 나왔다. 이들은 각기 철판의 보강 방법도 다르고, 윤부와 병부의 단면형태도 다른 것이 섞여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6) 필자는 전고에서 이를 구분하여 전자, 즉 목심 전면에 금동판이나 철판을 씌운 것을 木心金屬板(金銅板, 鐵板)被鎧子, 후자, 즉 목심의 일부 취약 부분을 금동판이나 철판으로 보강한 것을 木心金屬板(金銅板, 鐵板)張鎧子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혼동하여 바꾸어 쓰기도 하고 모두를 목심금속판피등자로 쓰기도 한다.

병부가 짧은 단병등자라는 것과 취약부분을 철판으로 보강하였을 뿐 목심의 전면을 금속판으로 씌우지는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외 신라·가야의 초기 단병등자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복천동 21·22호분 출토 고리형 현수공 등자 외에는 모두 등자의 병두가 둥글다는 점이다. 이점은 뒤에 제시하는,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조선총독부 1937)과 동래 복천동 35·36호분(부산대학교박물관 2012)의 초기 목심 단병등자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초기 단병등자와 장병등자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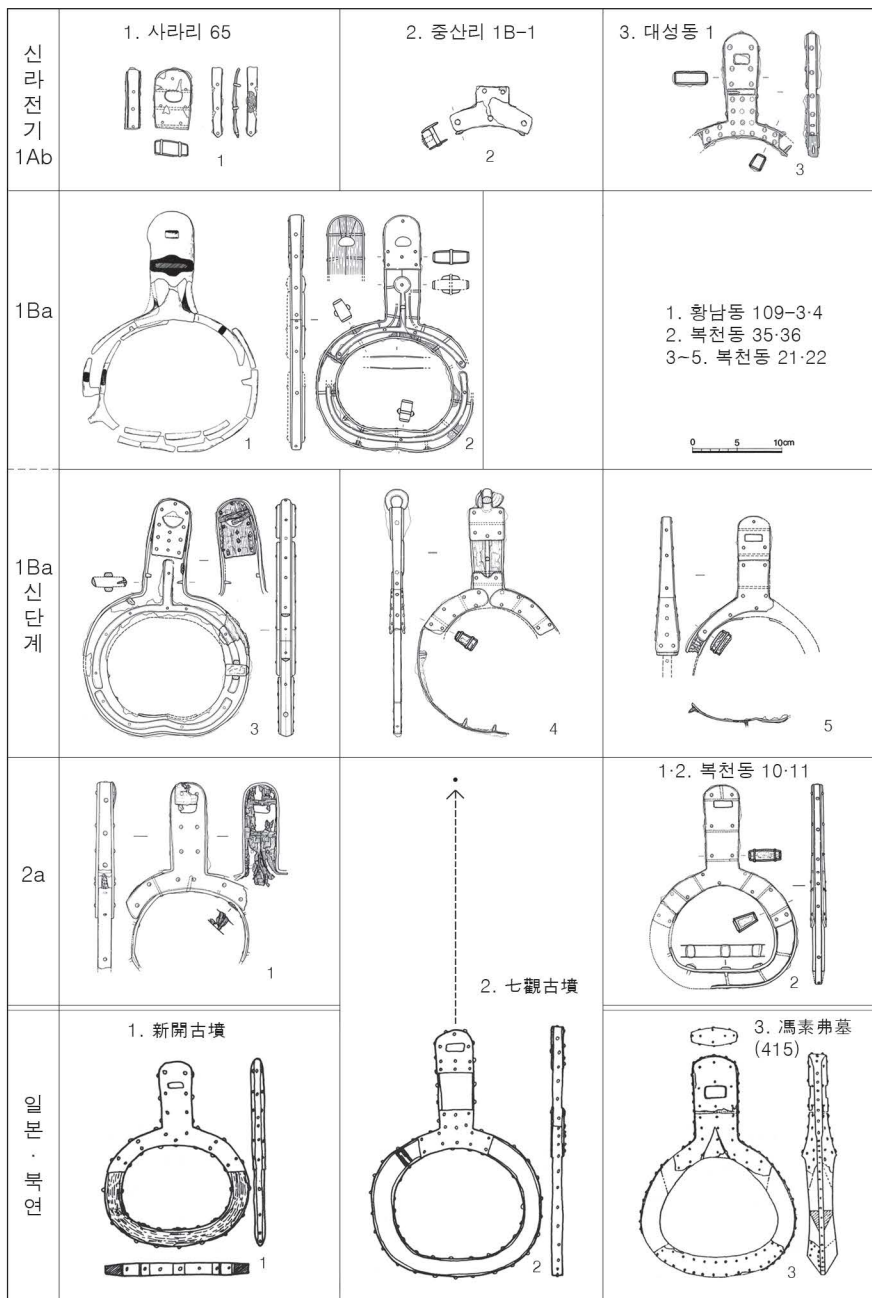
1) 초기 단병등자의 발전(도면 4)

그런데 목심 단병등자의 시원은 윤부 삼각형 등자가 부착된 중국의 4세기 전반 기 도용에서 볼 수 있지만(최병현 1983·1992), 초기 단병등자의 철판 보강 상태는 이른 시기 신라·가야 고분 출토 단병등자에서 확인된다. 경주 사라리 65호분에서는 목심등자의 측면 일부를 보강한 철판과 함께 병부 현수공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보강한 병두보강 철판 1쌍이 출토되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 중산리 1B-1호분에서는 목심등자의 윤부가 병부로 합해지는 부분만 보강한 人자형 철판이 한 짝만 출토되었다(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그런데 이 철판은 병부 하단 부분과 양쪽의 윤부로 갈라지는 부분이 각각 별개의 철판으로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성동 1호분에서는 병부와 병부 양쪽의 윤부 전후면을 병두 부분과 그 아래쪽의 2단으로 나누어 철판으로 보강하고, 병부의 양쪽 측면도 철판으로 보강한 목심등자 1쌍이 출토되었다(경성대학교박물관 2010).

다음 단계의 목심 단병등자들은 이 세 유적의 것에서 각각 철판 보강부분을 더 넓혀간 것이다.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의 목심 단병등자와 동래 복천동 35·36호분의 답수부가 반전된 윤부 타원형(도하트형) 목심 단병등자는 철판 보강부분이 늘어나 등자의 안팎 측면, 그리고 현수공을 중심으로 한 병두 부분을 각각의 철판으로 보강하였고, 병부 하단과 윤부 상단의 전후면은 별도의 역‘Y’자상 철판대로 보강하였다. 복천동 35·36호분 것은 윤부 하단도 철판대로 보강하였다.

복천동 21·22호분 출토 목심 단병등자 가운데 윤부 도하트형은 철판과 철판대로 보강 상태가 앞의 복천동 35·36호분 것과 같으나, 다만 등자 전면의 역‘Y’자상 철판상부 끝의 원판이 없어진 것만 다르다. 이들은 앞의 사라리 65호분의 병두 부분 철판

판보강 등자에서 보강부분을 넓혀온 것이 분명하다. 복천동 21·22호분에서 출토된 등자 중 현수공이 병부 위의 별도 고리로 되어 있는, 윤부 원형의 목심등자는 병두 부분과 병부 하단 윤부 연결부의 보강 철판 사이를 가는 철대로 이었다. 그런데



[도면 4] 초기 단병등자의 발전

이 등자의 병부 하단 윤부 연결부 보강 철판은 병부 하단 부분과 양쪽 윤부 부분이 각각 별개인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앞의 중산리 1B-1호분 등자의 보강 철판 상태와 같은 것이다. 복천동 21·22호분의 윤부 삼각형 목심등자는 병부와 윤부 상단 보강철판을 2단으로 나눈 것으로 앞의 대성동 1호분 등자와 같은 방식이다.

다음은 복천동 10·11호분 출토 목심 단병등자들로, 이들은 윤부가 타원형으로 추정되는 것과 삼각형인 것 모두 병부와 윤부 상단의 전후면을 보강한 철판이 하나로 된, 즉 1단 보강등자들인 것이 앞의 것들에서 달라진 점이다.

그런데 이상의 등자 출토 고분들은 필자의 경주지역 신라 전기양식토기 상대편년(최병현 2013)으로 울산 중산리 1B-1호분과 경주 사라리 65호분은 1Ab기, 김해 대성동 1호분은 1Ab기 병행기⁷⁾,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은 1Ba기, 동래 복천동 35·36호분은 1Ba기 병행기, 동래 복천동 21·22호분은 1Ba기 병행기 신단계이고, 동래 복천동 10·11호분은 2a기 병행기에 속한다⁸⁾. 즉 신라·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초기 목심 단병등자들은 처음에는 계보에 따라 철판 보강 부위나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단계적으로 철판 보강 부분을 확대해 오다 복천동 10·11호분 단계에 오면 철판 보강 부위나 방식이 통합된 것이라 하겠다.

이제 여기서 복연 풍소불묘 등자를 살펴보면, 이 등자는 목심의 안팎 측면, 그리고 병부 전체와 윤부 상단 전후면은 물론 윤부 하단의 전후면까지 금동판으로 보강하였다. 즉 윤부 전후면의 중단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금속판으로 보강한 것이어서 금속판 보강 부분이 앞의 신라·가야 초기 목심등자들보다도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단병등자들의 전체 규모와 병부의 변화를 주목해 보면, 대성동 1호분의 병부 2단 보강 등자는 윤부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윤부 삼각형

7) 이외 동래 복천동 60호분 주곽에서는 목심등자의 병부와 윤부 연결부의 보강 철판과 철제 표비가 묘광 내부로 함몰된 봉토층에서 나왔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96). 전고(최병현 2012)에서 밝혔듯이 복천동 60호분 주곽은 필자의 신라 초기양식토기 2b기 병행기인데, 만일 이 마구와 복천동 60호분 주곽 내부 유물의 매납시기가 같다면 이 등자는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 것이 된다. 그러나 복천동 60호분 봉토층의 목심등자는 보강 철판이 하나로 된 것이 다르지만, 그 부위가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인 울산 중산리 1B-1호분 것과 같고, 표비도 역시 중산리 1B-1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똑같은 형식이다. 또 아직 보고서 미간인 복천동 48호분에서는 목심등자의 병부와 윤부 연결부 및 윤부 일부를 보강한 철판이 나왔는데, 출토토기는 사진(복천박물관 2009:76)으로 보아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나 1Ba기 병행기로 판단된다.

8) 필자의 전고(2013)에서는 동래 복천동 10·11호분의 신라토기가 경주의 신라 전기양식토기 1Bc기인 황남동 110호분 단계 토기를 모델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그 시기를 황남동 110호분과 같은 1Bc기 병행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동래 복천동 10·11호분의 신라토기 중에는 분명히 신라 전기양식토기 2a기인 경주 황남대총 남부 단계 고배를 모델로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시기를 2a기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되는 별고에서 다루겠다.

등자는 북천동 21·22호분, 북천동 10·11호분, 풍소불묘로 오면서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병부의 너비도 차례로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과 동래 북천동 35·36호분의 윤부 타원형 또는 도하트형 등자가 원래 윤부 삼각형 등자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병부도 길고 폭이 넓었으나 북천동 21·22호분, 10·11호분 순으로 오면서 병부가 짧아지고 가늘어지며 규모도 축소되는 변화와 분명히 대조적이다. 윤부 삼각형 등자와 타원형 등자는 이와 같이 상반된 방향이지만 각각 방향성을 갖고 변화된 것으로, 풍소불묘 등자의 전체 규모와 폭이 넓은 병부도 그러한 변화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은, 필자가 일찍이 지적한 바 있듯이(최병현 1983), 풍소불묘 등자가 단병등자의 초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된 형식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풍소불묘 등자는 병부의 금속판 보강 방식이 고식 속성인 2단 보강인 것이 지적된다(신경철 2009). 또 북천동 10·11호분 등자의 답수부에 존재하는 3개의 미끄럼방지 못이 풍소불묘 등자에는 없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박천수 2010:111). 등자 답수부의 미끄럼방지 못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풍소불묘 등자의 병부 2단 보강은 동래 북천동 20·21호분 등자 이전의 속성이어서 1단 보강으로 바뀐 북천동 10·11호분 등자보다 고식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풍소불묘 등자의 윤부 내면 쪽 두께가 병부보다 두꺼워져 있는 점이다. 병부에 비하여 윤부가 두꺼워진 것은 북천동 21·22호분의 윤부 삼각형으로 추정되는 등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윤부 쪽이 두꺼워지는 방식이 달라, 북천동 21·22호분 것은 측면형태로 보아 병부에서 윤부로 내려오며 점차 두꺼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남부 북천동 21·22호분의 윤부 삼각형 등자와 중국 동북지방 풍소불묘의 윤부 삼각형 등자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윤부 삼각형 등자가 그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어느 시점부터는 서로 발전 방향을 달리하는 별도 계열로 나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풍소불묘 등자는 병부의 금속판 보강방식에 고식 속성이 남아있지만, 분명히 병부의 너비나 금속판 보강 부분에서 좀 더 변화되거나 발전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이제 이와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보면 풍소불묘 등자를 앞의 울산 중산리 1B-1호분, 경주 사라리 65호분, 김해 대성동 1호분 등자는 물론이고,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과 동래 북천동 35·36호분 및 21·22호분 등자들보다 이른 시기로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고식 속성의 유지만으로 풍소불묘 등자를 북천

동 10·11호분 등자보다 앞서라 단정하는 것도 무리한 판단이다. 두 등자 사이의 선후 관계는 다른 속성들의 발달상태와 두 고분 공반유물의 검토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다. 두 고분 공반유물의 직접비교가 어려우면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복천동 10·11호분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이 속한 신라 전기양식토기 2a기 병행기이고, 필자(1992)의 전고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황남대총 남분 출토 청동용기들은 고구려 적석총인 칠성산 96호분이나 우산 68호분 청동기와 같은 계통으로 형식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들이다. 小田富士雄은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설을 이용하여 집안 칠성산 96호분과 풍소불묘의 선후관계를 뒤집어 놓았지만,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고학자료 해석의 기본적인 객관성 확보를 도외시한 결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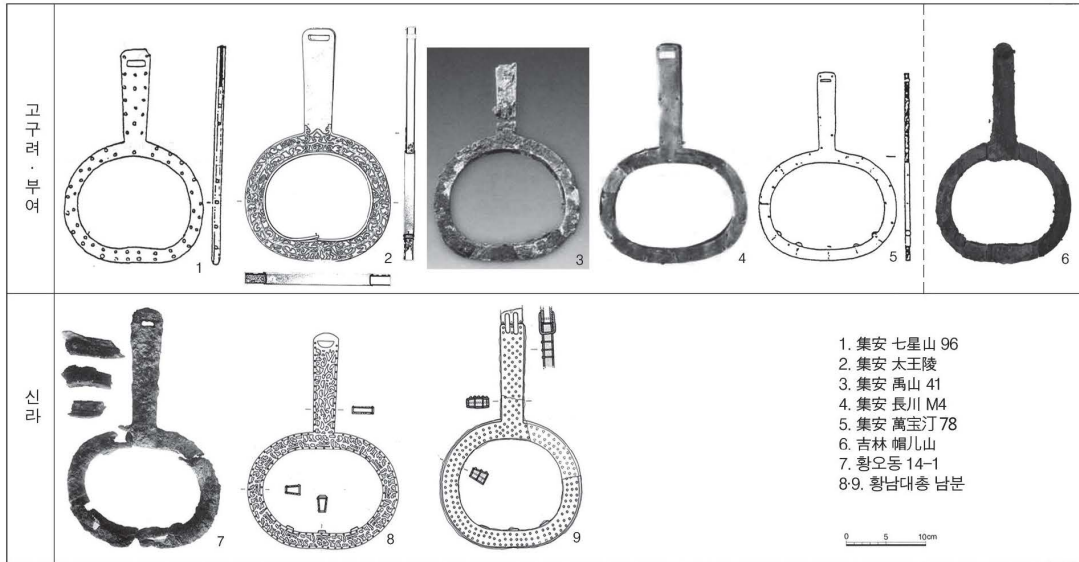
그러므로 풍소불묘 등자는 그러한 상태로 발전된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가 서기 415년 무렵 중국 동북지방에 존재하였다는 해석으로 족하며, 동시에 역으로 앞에서 살펴본 신라·가야의 초기 단병등자들이 그보다 이른 시기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이다. 출토지가 중국 동북지방이라 하여 반드시 한반도 남부지방의 모든 단병등자들보다 앞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신라고분 출토 초기 단병등자들은, 그 출토지가 중국 동북지방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지방일 뿐으로, 초기 목심 단병등자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며 4세기 전반기의 도용 등자와 풍소불묘 등자 사이를 채워주는, 풍소불묘 등자 이전의 4세기 목심 단병등자들인 것이다.

2) 초기 장병등자의 발전(도면 5)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국 동북지방의 전연시기 장병등자들은 윤부형태나 세부 속성이 다양하였지만 병부가 길고, 목심등자들은 전면을 금속판(원대자벽화묘 것은 가죽)으로 씌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제 415년 풍소불묘 이전으로 편년되는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를 뽑아보면 고구려 것으로는 칠성산 96호분과 태왕릉 출토 등자(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04), 신라 것으로는 황오동 14호분-1곽(조선총독부 1937)과 황남대총 남분(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출토 등자가 있다⁹⁾.

칠성산 96호분은 小田富士雄가 그 연대를 5세기 이후로 내린 후 6세기 전반까지

9) 경주 황남동 110호분(이은창 1975, 김대환 외 2008)에서도 윤부만 남은 등자가 출토되었는데, 윤부 전면을 철판으로 씌운 것으로 보아 장병등자인 것은 분명하나 병부 형태를 알 수 없어 여기서는 일단 제외한다.



[도면 5] 고구려 ·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와 관련자료

경쟁적으로 연대 내리기를 하였지만(穴澤咏光 · 馬目順一 1984, 中山清隆 · 大谷猛 1983, 東潮 1988), 중국의 董高(1995)는 4세기 중반 전후~말로, 田立坤(2012)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4세기로 보고 있는 등 중국 학계에서 칠성산 96호분을 5세기 이후로 내려보는 연구자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희준이 4세기 후엽으로 편년한 바 있다. 태왕릉은 391년의 고국양왕릉설(이희준 2006)과 413년의 광개토대왕릉설이 있지만, 필자는 등자 자체의 형식으로 보아 태왕릉 등자가 서기 400년 이후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외 고구려의 이른 시기 등자로 집안 우산 41호분과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장병등자도 있으나 이들은 논리 전개상 뒤에서 따로 고찰하겠다.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의 연대에 대해서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여튼 이들도 물론 세부적으로는 각기 차이가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단병등자들에 비하면 모두 병부가 가늘고 길며, 목심 전면을 금속판으로 씌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연대가 어떻게 설정되든 이들이 현재로서는 고구려와 신라 고분의 가장 이른 시기 장병등자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들이 신경철(1985)의 주장처럼 고구려와 신라의 단병등자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구려에서는 지금까지도 칠성산 96호분이나 태왕릉의 장병등자보다 이른 시기의 단병등자는 물론이고 이들보다 늦은 시기의 단병등자조차도 출토에 자체가 없다. 신라 · 가야지역에서는 장병등자의 출현

에 앞서 단병등자가 먼저 발전하고 있었지만, 앞의 신라 초기 장병등자들이 그들로부터 발전된 형식의 ‘신식등자’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장병등자는 경주 황오동 14호분-1곽 출토 등자인데, 신경철(1985)은 황오동 14호분의 연대를 동래 복천동 10·11호분보다 뒤로 보고 있지만, 황오동 14호분-1·2곽의 출토 토기는 황남동 110호분과 함께 신라 전기양식토기 1Bc기로, 2a기인 황남대총 남분, 그리고 그와 병행기인 복천동 10·11호분보다 1단계 앞이다. 즉 신라에서 장병등자는 황남대총 남분에 앞서 늦어도 황남동 110호분·황오동 14호분 단계부터는 단병등자와 공존한 것이다. 그러나 황오동 14호분과 동래 복천동 10·11호분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든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가 동래 복천동고분군 출토 등자와 같은 단병등자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는 단순히 등자 병부의 길이 차이만이 아니고, 뒤에서 보듯이, ‘고식등자’와 ‘신식등자’의 차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등자 제작방법의 차이이고 계보의 차이인 것이다. 칠성산 96호분과 태왕릉의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 황오동 14호분과 황남대총 남분의 신라 초기 장병등자는 세부 형태와 제작방법이 명백히 신라·가야의 초기 단병등자들과는 다르고 전연시기 장병등자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제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가 단병등자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은 그만 접고, 전연시기 장병등자에서 유래된 것임을 인정하여야 된다. 사실 신라의 단병등자에서 발전한 장병등자는 따로 있어,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밝힐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 가운데 윤부가 타원형이고 둥근 병두에 아래쪽이 좁아지는 병부를 가진 목심 장병등자는 그 형태로 보아 전연시기 목심등자 가운데에서도 북표 북구 M8:2호 등자와 같은 것이 조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와 신라 초기 장병등자들의 병부 길이와 윤부 높이를 비교하여 보면 대개 병부의 길이가 등자 전체 높이의 5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점은 반대로 병부의 길이가 등자 전체 높이의 50% 이상인 전연시기 장병등자와 대조되는 것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가 함께 전연시기 장병등자로부터 변화된 공통점일 것이다¹⁰⁾. 지금

10) 병두가 직선적인 북표 북구 M8호묘와 조양 삼합성묘 목심등자만 병부 길이와 윤부 높이가 거의 같고, 다른 것들은 모두 병부의 길이가 윤부의 높이보다 조금씩 더 길어 차별성이 있다. 이 직선병두 목심등자는 뒤에서 보듯이 황남대총 남분의 등자와도 상통한다.

한편 단순히 병부의 길이만으로 장병등자와 단병등자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

전연시기 장병등자들을 정확한 편년순서대로 배열할 수는 없지만 앞의 [도면 3]은 병부와 윤부의 차이에 따라 배치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보아도 전연시기 장병등자는 병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폭은 넓어지면서 상하폭의 차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연시기 장병등자와 비교하여 고구려와 신라 초기 장병등자의 병부 길이가 짧아진 것은 그 연장선상의 변화였을 것이다.

한편 칠성산 96호분과 태왕릉 출토 등자의 아래쪽이 좁아진 병부는 길이에 비해 폭이 넓고, 병두는 양단을 말갸한 정도로 직선에 가까우며, 타원형 윤부는 답수부의 반전이 약화되어 그 기미만 남아 답수부가 수평에 가깝고, 좌우 장경이 길지만 상하도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의 이러한 특징은 전연시기 장병등자에서 달라진 점이지만 집안 장천 M4호분과 만보정 78호분 등자와 같이 전체가 가늘어지고 병부는 세장하며 윤부는 완전 타원형으로 바뀐, 5세기의 고구려 등자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사이에 목심등자 제작기법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겠다. 한편 우산 41호분 등자는 윤부가 앞 시기의 것과 통하고, 병부는 뒷 시기의 것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어 바로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임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를 살펴보면, 황오동 14호분 등자의 둥근 병두에 긴 병부는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보다도 오히려 더 조형에 가까운 고식 속성이지만, 윤부는 장타원형이어서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와 다르다. 황남대총 남분의 옥충장식 장병등자는 병부가 그보다 짧아지고 상하폭 차이도 줄었으며 윤부도 장타원형이지만, 윤부 하단 가운데에는 아직 반전의 흔적이 남아 있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이와 함께 병두가 직선적이고 병부의 상하폭도 거의 균일한 목심 장병등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직선병두 등자는 윤부의 형태도 옥충장식 등자와는 달라 답수부가 수평에 가깝고 상하도 높은 편이어서 오히려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의 윤부와 가깝다. 그래서 이 등자는 옥충장식 등자와 계보가 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는 단병등자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단병등자와는 계보 자체가 달랐고, 발전과정도 달랐던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는 병부 길이가 등자 전체높이의 45% 이상이나, 앞에서 살펴본 신라의 단병등자 가운데 가장 큰 동래 복천동 21·22호분의 윤부 타원형 등자는 병부길이가 등자 전체 높이의 44.7%이고 가장 작은 복천동 10·11호분의 윤부 삼각형등자는 병부길이가 41.2%이어서 모두 45% 이하이다. 풍소불묘·七觀고분·新開고분 등자의 병부 길이는 모두 40% 이하인 점도 주목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장병등자는 분명히 전연시기 장병등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단일 계보에서 나온 것은 아니어서, 고구려와 신라의 등근병두 장병등자와 황남대총 남분의 직선병두 장병등자는 원래 계보가 달랐을 것이며, 고구려와 신라의 등근병두 장병등자도 원래는 같은 계보였을 것이나 일찍 다른 계열로 갈라져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3. 초기 단 · 장병등자의 공존과 허구의 풍소불묘 등자설

1) 초기 단·장병등자의 공존

이상이 서기 4세기 전연시기부터 415년 북연 풍소불묘 이전까지의 중국과 고구려 및 신라의 초기 등자 발전과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등자 자체로서 등자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공반유물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주면 중국과 한국 고대의 초기 등자는 풍소불묘 등자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부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가 한 것이 아니라, 장병등자와 단병등자가 공존하면서 단병등자는 단병등자대로, 장병등자는 장병등자대로 변화 · 발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4세기 전반기의 도용등자와 415년 풍소불묘 등자 사이의 단병등자 발전과정이 비어 있지만 한반도 남부지방의 신라 · 가야 초기 단병등자들이 그 사이를 채워주고 있으며, 장병등자들은 전연시기 장병등자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장병등자로 이어져 발전한 것이다.

한편 단병등자의 시원을 보여주는 4세기 전반기의 도용들은 절대연대를 갖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병등자가 장병등자에 앞서 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공표되어 있는 등자들 가운데에도 북표 북구 M8호묘 장병등자는 전연의 용성 천도(341) 이전으로 소급시켜 보는 견해도 있거니와(董高 1995, 田立坤 2012) 지금으로서는 중국에서 단병등자와 장병등자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출현하였는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마도 일찍이 필자(1983 · 1992)가 언급한대로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는 발생 지역이나 족적인 차이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장병등자와 단병등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각각 발생하여, 물론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였겠지만, 공존하면서 각각 발전과정을 겪었다고 보아야 옳다.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그 중에서 한반도 남부지방에 먼저 들어온 것은 단병등자였고 장병등자는 곧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이 된다. 그러나 경주 황남동 110호분과 황오동 14호분 출토 장병등자가 과연 신라에서 최초의 장병등자였는지는 좀 더 고려

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장병등자는 경주의 적석목곽분에서부터 출현한 것이 주목되는데, 현재까지 경주 최고의 적석목곽분은 단병등자가 출토된 황남동 109호분-3·4곽이지만, 이 고분은 황남대총은 말할 것도 없고 황남동 110호분이나 황오동 14호분보다도 위계가 낮다. 그러므로 최소한 황남동 109호분-3·4곽과 같은 시기, 아니면 그 직전에는 존재하였을 상위 위계의 적석목곽분에는 어떤 등자가 매납되었는지 알 수 없다. 같은 장병등자이지만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황오동 14호분 장병등자의 병부가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보다도 오히려 조형에 가까운 고식속성을 갖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원래 단병등자였음이 분명한 목심등자가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이 출현하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보다 앞서 1Ab기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단병등자가 먼저 한반도 남부지방에 도입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장병등자가 들어온 루트는 직접 전비에게서 일 수도 있고 고구려를 통해서 일 수도 있지만, 단병등자는 현재로서는 그와는 다른 루트도 상정해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부분 철판보강 목심등자를 중심으로 발전한 한반도 중부지방의 백제유적 출토 초기 등자들이 주목되는 존재들이다.

2) 허구의 풍소불묘 등자설

이제 다시 풍소불묘 등자설이 나온 배경과 그 진행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우선 小野山節(1966)의 일본 출토 등자의 구분부터가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新開古墳 등자를 ‘고식’ 단병등자로, 七觀古墳 등자를 ‘신식’ 장병등자로 구분하였지만, 사실은 그 구분 자체가 오류였던 것이다. 이 등자들은 모두 취약부분을 철판으로 보강한 목심 단병등자이며, 단병등자 가운데 다만 철판 보강 방식이 다른 계열이었고, 또 전체의 규모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도면 4 참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병등자라는 七觀古墳 등자가 단병등자라는 新開古墳 등자보다도 더 고식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七觀古墳 등자는 기본적으로 동래 복천동 21·22호분 출토 윤부 원형 등자 계열로, 병두부 철판 보강방식은 복천동 21·22호분의 윤부 타원형 등자나 윤부 삼각형 등자의 병부 철판 보강방식을 따른 것이고, 윤부가 타원형이 된 것도 윤부 도하트형에서 변화된 형태를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등자는 복천동 10·11호분 이전 단계의 고식속성을 갖고 있는 반면, 新開古墳 등자는 전체가 소형화되어 병부가 짧고 가늘며 윤부도 완전 타원형이고 철판 보강방식도 1단식이어서 동래 복천동

10·11호분 등자보다도 후행하는 형식임이 분명하다¹¹⁾. 결국 이들은 七觀古墳 등자가 선행형식, 新開古墳 등자가 후행형식인 목심 단병등자들로서 처음부터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小野山은 자신의 구분이 지금처럼 확대 해석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겠지만, 더욱이 ‘고식등자’와 ‘신식등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小野山節는 이 일본 고분 출토 등자의 단계구분에 행엽의 공반여부를 연계시켰지만, 이는 다만 두 일본고분에서의 현상이었을 뿐이다(최병현 1983). 이른 시기부터 등자와 행엽의 공반은 신라고분에서 이미 밝혀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공반이 전연시기부터였음도 잘 알려져 있다.

穴澤啄光(1973)의 풍소불묘 등자설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는 풍소불묘 출토 단병등자가 공표되자마자 小野山의 일본 등자 도입 2분 단계설을 단병등자에서 장병등자로의 발전설로 비약하고 풍소불묘 등자가 세계 최고의 등자 실물이라고 단정해버렸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풍소불묘 등자가 세계 최고의 실물 등자도 아니고, 장병등자가 단병등자로부터 발전한 것도 아니었다. 穴澤啄光(1984)는 또 효민둔묘 장병등자가 공표되자 앞의 [도면 1]처럼 효민둔묘·풍소불묘·新開고분의 등자를 겹쳐 그려 놓고 초기 등자의 병부가 장병에서 단병으로 짧아진 것이라고 통합하려 하였지만, 효민둔묘 등자와 풍소불묘 및 新開고분 등자는 50년 이상의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장병등자와 단병등자로 그 계보 자체가 달랐다. 또 풍소불묘 등자와 新開고분 등자도 둘 다 단병등자이지만 각각 윤부 삼각형과, 윤부가 완전 타원형으로 변한 단병등자로서 그 갈래가 달라, 3자의 발전과정이 모두 상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통합도 곧 원대자묘벽화묘 장병등자의 공표로 그 허구가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허구가 드러나 소멸되어 가던 풍소불묘 등자설을 소생시켜 놓은 것은 신경철(1985)이었다. 그는 먼저 당시로서는 보기 어려운 신자료들인 동래 복천동고분군 출토 단병등자들을 앞세워 이들을 ‘고식등자’로, 경주 황오동 14호분·황남대총 남분·고령 지산동 32호분, 그리고 고구려 칠성산 96호분 출토 장병등자들을 ‘신식등자’로 단정하였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가 미리 이들을 ‘고식등자’와 ‘신식등자’라고 단정하여 버린 것은, 그 자신이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듯

11) 본고 작성중 입수한 七觀古墳 신보고서에서도 七觀古墳 등자를 일본 고분시대 中3期(新相)인 新開古墳 등자보다 앞인 中3期(古相)에 배치하였다(鈴木一有 2014:363).

이, 小野山の 견해를 따른 것이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小野山の 구분 자체가 오류였다. 그런데 小野山은 제작방법이 공통된 목심등자들을 병부의 길이만으로 ‘고식’ 단병등자와 ‘신식’ 장병등자로 구분하였다면, 신경철은 목심 전면을 금속판으로 씌운 등자들까지 포함하여 제작방법과 관계없이 병부가 긴 등자들을 모두 ‘신식등자’로 단정하여 小野山の 견해를 또다시 확대·왜곡한 것이다. 小野山の 견해가 穴澤에 의해 1차로 왜곡되었다면, 신경철에 의해 2차로 왜곡되고 확대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小野山처럼 ‘고식등자’와 ‘신식등자’의 구분에 복천동고분군의 행엽 공반여부를 결부시키려 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단정해 놓고 등자의 제1 속성을 병부 형태가 아니라 윤부 형태로 보아 소위 ‘고식등자’를 윤부 도하트형(A형)과 삼각형(B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는 효민둔묘 공표 후 穴澤가 풍소불묘 등자설을 봉합하려다 만 ‘초기등자의 병부가 장병에서 단병으로 짧아졌다’는 주장을 들어 장병에서 단병으로 변한 A형과 원래 단병인 B형이 415년 무렵 고구려를 경유하여 한반도 남부지방에 도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리 단병등자가 ‘고식등자’라고 단정해 버렸으니 등자를 윤부형태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두 종류의 단병등자가 고구려를 경유하여 내려왔다고 한 것도, 그 자신이 小田의 칠성산 96호분 연대관을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듯이, 穴澤-小田 프레임으로 고구려군 남정설을 고수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小田의 칠성산 96호분 연대관은 애초부터 편견이었고, A형이건 B형이건 그가 말하는 단병등자가 고구려를 경유하였다는 흔적도 지금까지 발견된 바 없다.

그는 그렇게 하여 남부지방에 도입된 단병등자 가운데 윤부 도하트형 등자는 목심 전면에 금속판을 씌운 윤부 타원형의 장병등자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윤부 도하트형(A형) 등자는 원래 중국에서 장병이었던 것이 단병이 되어 한반도 남부지방에 들어왔고, 이들이 다시 장병이 되어 목심 전면에 금속판을 씌운 윤부 타원형의 ‘신식등자’로 변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목심 전면에 금속판을 씌우는 것은 ‘신식등자’가 아니라 전연시기 장병등자의 속성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장병등자들은 그러한 전연시기 장병등자의 계보를 이어 발전한 것이다. 앞의 복천동고분군 단병등자가 그 이후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윤부가 도하트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뀐 단병등자는 전체 규모가 왜소해지고 병부도 더욱 짧아진 단병등자로 남았을 뿐이다. 다만 신라 등자 가운데 단병등자에서 장병등자로 발전한 것으로는 경주 황오동 14호분부터 보이는 역‘Y’자상 철대 보강 목심등자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신경철의 고식등자 분류와 해석은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설을 합리화 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 고고학자료 해석의 객관성 확보나 검증에 신경쓸 여지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미 철이 지난 小野山節의 분류를 다시 들추어내고, 穴澤-小田 프레임으로 보충받으려 하였지만, 그것들은 모두 오류와 편견들이었을 뿐이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풍소불묘 등자설은 처음부터 허구였을 뿐이다.

Ⅳ.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의 연대와 성격

1.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도면 6)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에는 모두 윤부 답수부에 3개씩의 미끄럼방지 못이 박혀 있다. 장병등자뿐만 아니라 단병등자도 마찬가지인데, 토기형식으로 보아 황남대총 남분과 병행기인 동래 복천동 10·11호분의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에도 3개의 미끄럼방지 못이 박혀 있다. 즉 신라에서는 신라 전기 양식토기 2a기부터 등자의 윤부에 미끄럼방지 못이 등장한 것이다.

학계의 일각에서는 등자 윤부의 미끄럼방지 못이 고구려 고분인 집안 만보정 78호분 등자부터 출현하였으므로 경주 황남대총 남분과 동래 복천동 10·11호분 등자는 그보다 뒤로 편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천수 2012). 그런데 만보정 78호분 등자의 답수부 미끄럼방지 못은 5개인데 비해 경주 황남대총 남분과 동래 복천동 10·11호분 등자의 답수부 미끄럼방지 못은 3개이어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구려 석실분인 평성 지경동 1호분에서 답수부에 3개의 미끄럼방지 못이 있는 등자가 출토된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이 등자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평성 지경동에서는 1976년과 1977년에 걸쳐 황혈식석실분 2기가 발굴되었는데, 등자는 그 중 1호분의 연도 서쪽에 붙은 소형 벽감 앞에서 다른 마구들과 함께 1쌍이 나왔고, 1호분의 동쪽에 위치한 2호분의 연도에서도 1쌍이 나왔다고 한다. 지경동고분 출토 등자의 실측도는 발굴보고(박창수 1986)에 1호분 출토 등자 한 짝(도면 6의 상 2), 그리고 다른 문헌(박진욱 1986)에 1, 2호분 중 어느 쪽 것인지 알 수 없는 한

작(도면 6의 상 3)이 소개되었다. 두 도면의 등자 형식에 차이가 없고, 또 다른 문헌들에서 1호분 출토로 소개된 등자 1쌍의 사진(<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5)도 두 도면의 등자일 것으로 보여 도면의 등자를 한 쌍으로 보아 고찰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문헌들에서 이 등자의 제작기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도면에 병부 현수공 주위의 철판이 떨어져 나온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사진들에서도 등자의 바깥 측면 철판이 터져 나온 상태가 보이므로 이 등자는 전면에 철판을 씌운 목심등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 등자는 윤부와 병부가 모두 가늘어졌고 짧아진 병부의 폭도 아래쪽으로 미세하게 좁아진 감이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변화되어서 앞에서 살펴본 칠성산 96호분과 태왕릉의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답수부가 직선적이고 좌우 장경에 비해 상하 단경도 높아 보이는 윤부의 형태는 완전히 타원형으로 바뀐 집안 장천 M4호분과 만보정 78호분의 5세기 등자와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도면 5 참조). 그래서 이 등자의 전체 형태는 집안 우산 41호분 출토 등자와 가장 유사한데, 우산 41호분 등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윤부 답수부의 미끄럼 방지 못 3개가 이 지경동 1호분 등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와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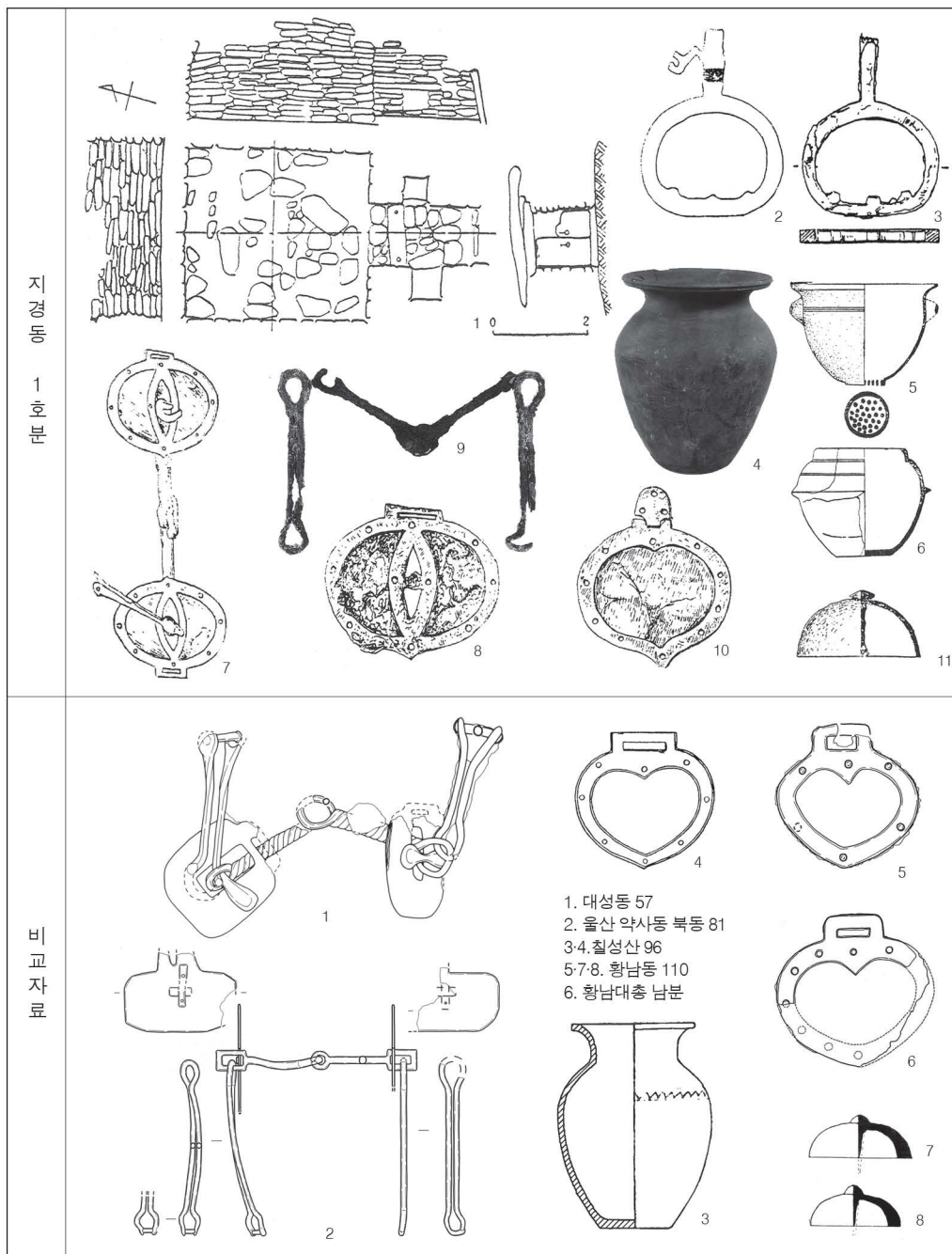
2. 평성 지경동 1호분 석실 구조와 공반유물의 검토(도면 6 참조)

<석실 구조> 지경동 1호분은 석실봉토분으로 석실 형식은 방형 석실에 중앙연도가 달린 단실분이다. 연도 양쪽으로는 소형의 벽감이 달렸으며, 벽감은 천정이 낮아 연도 천정에 훨씬 못미친다. 이와 같은 석실 구조는 緒方泉(1985)의 분류에서 천정이 궁륭식이면 乙-1형, 평행 고임식이면 乙-2형이고, 東潮(1993·1997)의 분류로는 I유형이다. 지경동 1호분의 석실 천정은 파괴되었고, 보고에도 석실과 연도벽을 막돌로 쌓았다고 했을 뿐 천정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실측도에는 뒷벽이 내경하며 올라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궁륭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석실은 緒方泉 분류 乙-1형인데, 그는 석실 구조가 이와 같고 천정이 궁륭식인 마선구 1호분 및 석실이 2개 설치되어 하나는 궁륭식 천정이고 다른 하나는 단수가 많은 평행고임식으로 천정이 높은 통구 12호분을 4세기 3/4분기로 편년하였다(緒方泉 1985). 東潮도 같은 형식의 석실인 산성하 332호분을 부장품에 따라 4세기 중엽으로, 마선구 1호분을 4세기 후반으로, 통구 12호분은 4세기 후엽

으로 편년하였다(東潮 1993 · 1997).

그러나 東潮(1988)는 풍소불묘 등자설을 이용하여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를 5세기 전반으로 내려놓은 小田富士雄의 연대관을 따라 지경동 1호분의 마구를 6세기



[도면 6]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유물과 비교자료(축소비율 다름)

전반으로 편년하였다가, 다시 지경동 1호분은 집안 만보정 78호분과 공통하는 요소가 강하다면서 등자와 토기 등으로 보아 5세기 중엽이라고 하고, 다만 석실의 벽감은 전통이 잔존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東潮·田中俊明 1995:294)

이와 같이 지경동 1호분의 석실 구조 편년도 등자의 출토로 예의 풍소불묘 등자 설과 穴澤-小田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러한 전제와 편견에서 벗어나 보면 지경동 1호분의 석실 구조는 4세기로 올라가는 형식임이 분명하다.

〈마구류〉 지경동 1호분에서는 등자 외에도 안교 복륜, 경관비, 행엽, 운주, 교구 등 여러 가지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그 중 이 고분의 연대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경관비와 행엽, 운주이다.

먼저 경관비는 실측도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지만 심엽형 경관에 삼자루형 인수가 달린 것은 분명하다. 심엽형 경관에 뚫린 함류공이 긴 타원형인 것이 특이하지만, 이 경관의 함류공은 장축이 종방향이고 이에 따라 함류금구가 횡방향으로 부착된 것이 주목되는 속성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의 경관에 삼자루형 인수가 달린 재갈은 전연시기는 물론 신라와 가야의 4세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임은 이미 학계에서 다 인정된 것이고, 필자의 전고들에서도 그 예를 제시해둔 바 있다(최병현 2012·2013). 대표적인 예로서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 병행기인 김해 대성동 57호분 출토 경관비를 하나 더 제시하고, 또 참고로 함류금구가 이미 종방향으로 바뀌고 삼자루 인수도 변형된 것을 보여주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2b기, 연대로는 5세기 전엽인 울산 약사동 북동 81호분의 경관비도 함께 제시해 둔다.

보고문에는 재갈쇠, 경관, 인수의 형태가 똑같은 것이 1호분과 2호분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였는데, 다른 문헌에는 이와는 다른 재갈 하나가 1호분 출토품(도면 6의 상 9)이라고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 당혹스럽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138). 그러나 그 문헌에는 1호분과 2호분에서 출토되었다는 두 개의 경관 사진이 실려 있는데,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재갈이 과연 1호분에서 출토된 것인지, 그리고 이 재갈과 앞의 경관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갈 쇠 양쪽에는 한 줄의 철봉을 구부려 양쪽에 둥근 고리를 만든 2조선 인수가 달려 있고, 그 중 한 쪽의 인수 외환은 꺾여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인수가 달린 재갈은 5세기 이후 늦은 시기까지도 나오지만, 이른 시기 것으로는 전연시기의 북표 라마동 왕자분산 M9001호분(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외 1997)에서 함류금구가 횡방향인 심엽형 경관에 긴 2조선 인수가 달린 것이,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인 경산 임당동 G6호분에서는 역시 합류금구가 횡방향인 타원형 경관에 조금 짧은 2조선 인수가 달린 것이 출토된 바 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지경동 1호분에서 이 재갈의 실제 출토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이 재갈이 앞의 경관과 결합되는 것이라면 늦은 연대만이 아니라 이른 연대의 것이라도 비교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다음 행엽은 1호분에서 12개가 나왔는데, 모두 심엽형으로 가장자리에는 금동판을 돌렸으나 안에는 무늬가 없는 것이다. 실측도에는 가장자리에 못 10개가 박힌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사진을 대조해 보면 못은 모두 8개씩만 박혀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심엽형 행엽으로 가장자리의 못 숫자까지 똑같은 것이 칠성산 9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경주에서는 황오동 14호분-1곽에서 못이 4개씩 박힌 것, 황남동 110호분에서는 못의 수가 6개씩인 것이 출토되었고(김대환 외 2008),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12개의 못이 박힌 것이 출토되었다. 하여튼 이 행엽도 고구려와 신라의 4세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형식이다.

운주는 대소형이 있으나 형태는 같아 반구형 좌판 가운데에 머리가 둥근 못을 박은 것이다. 경주에서는 이와 같은 운주가 황남동 110호분에서 출토되었고, 지방에서는 교동 3호분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황남동 110호분은 신라 전기양식토기 1Bc기로 2a기인 황남대총 남분보다 1단계 이른 고분이고, 교동 3호분은 뒤에서 살펴보면 신라 전기양식토기 2b기의 지역양식토기가 출토되었지만, 이 고분 출토 등자는 그보다 고식 속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여튼 이 운주도 신라에서는 4세기 고분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이다.

〈토기〉 지경동 1호분에서 토기는 시루와 술, 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술은 그 자체로 형식이나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고, 고구려 시루도 학계에서 아직 편년안이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루는 증기공이 많은 소투공으로 되어 있는 다공시루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래로 완만하게 좁아지는 긴 동체나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 외반된 구연부 형태는 이미 증기공이 대형으로 바뀌고 동체가 낮아진 구의동유적 출토 시루보다 분명히 시기가 많이 올라가는 고식임이 분명하다¹²⁾. 이러한 고구려 토기 시루는 아마도 전연시기 다투공의 청동시루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장경호는 실측도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어깨 부분에 최대경이 있는 긴

12) 박경신(2006)은 지경동 1호분 시루를 그의 고구려 시루 편년 Ⅱ기로 4세기 이전까지 올려보고 있으나 Ⅲ기의 이른 시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체에서 구경부가 길게 외반한 것으로, 구연부 직경이 동체의 최대정보다는 작은 점 등으로 보아 대체로 칠성산 96호분 출토 장경호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구경이 좀 더 커진 형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緒方泉는 고구려 석실분을 사이장경호의 형식분류를 통해 편년하면서, 마선구 1호분의 사이장경호를 B-I형, 우산 41호분의 사이장경호를 B-II형, 산성하 332호분의 사이장경호를 B-III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는 토기 호로 편년한다고 하면서 칠성산 96호분 장경호를 장천 2호분의 C-1형 사이장경호와 같이 놓고 그 형식을 비교하여, 칠성산 96호분의 연대는 5세기 전반으로 小田富士雄의 연대관이 타당하다고 하였다(緒方泉 1983:104).

그러나 칠성산 96호분 장경호는 동체부의 길이나 축약 곡선이 장천 2호분 사이장경호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산 41호분 사이장경호와 더 가깝고, 특히 동체 상부에서 한 번 꺾여 자연스런 곡선으로 외반한 구경부는 완전 ‘ㄷ’자형으로 꺾인 장천 2호분 사이장경호와와는 확연히 달라서, B-I형인 마선구 1호분과 B-II형인 우산 41호분의 사이장경호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었다. 緒方泉는 등자가 아니라 토기호로 편년한다고 하였지만, 그도 결국은 穴澤-小田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小田가 연대를 특정해 놓지 않은 마선구 1호분과 우산 41호분의 연대는 사이장경호의 형식분류를 통해 각각 4세기 3/4분기와 4세기 4/4분기로 편년하고 있는 것이다.

3.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의 연대와 성격

이상 평성 지경동 1호분에서 출토된 등자와 석실구조, 그리고 공반유물을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지경동 1호분 출토 등자는 우산 41호분 등자와 함께 칠성산 96호분과 태왕릉의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보다는 분명히 늦은 형식이지만 5세기의 장천 M4호분과 만보정 78호분 등자보다는 이른 형식으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경동 1호분의 석실구조와 공반유물을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일본 학계의 지경동 1호분의 편년은 물론 관련 자료의 편년도 풍소불묘 등자설을 전제로 한 穴澤-小田 프레임으로 크게 왜곡되어 있지만,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보면,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 적용되지 않은 고구려 고고학자료의 연대관에 따르면, 우산 41

호분과 평성 지경동 1호분은 4세기대로 올라가는 고분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산 41호분 등자와 지경동 1호분 등자는 칠성산 96호분과 태왕릉의 고구려 초기 장병등자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 연대는 4세기 말 이전이라고 판단된다.

평성 지경동 1호분 등자는 이와 같이 고구려의 등자 발전과정에서 윤부에 미끄럼방지 못이 4세기 말 이전에 출현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처음 출현한 미끄럼방지 못의 수도 3개였던 것을 알려준다. 이후 등자 윤부의 답수부에 미끄럼방지 못의 부착은 고구려와 신라 등자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만보정 78호분 등자에서 보듯이 5세기 전엽에는 미끄럼방지 못이 5개로 늘어난 것도 출현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등자에 미끄럼방지 못이 출현한 이후 그것이 모든 등자에 다 부착된 것은 아니어서 5세기 이후의 고구려와 신라 등자 가운데에도 부착되지 않은 것이 있다. 아마도 5세기 이후 등자에서 윤부의 미끄럼방지 못은 모든 등자가 아니라, 즉 장식등자보다는 실용등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와 그 성격

1. 출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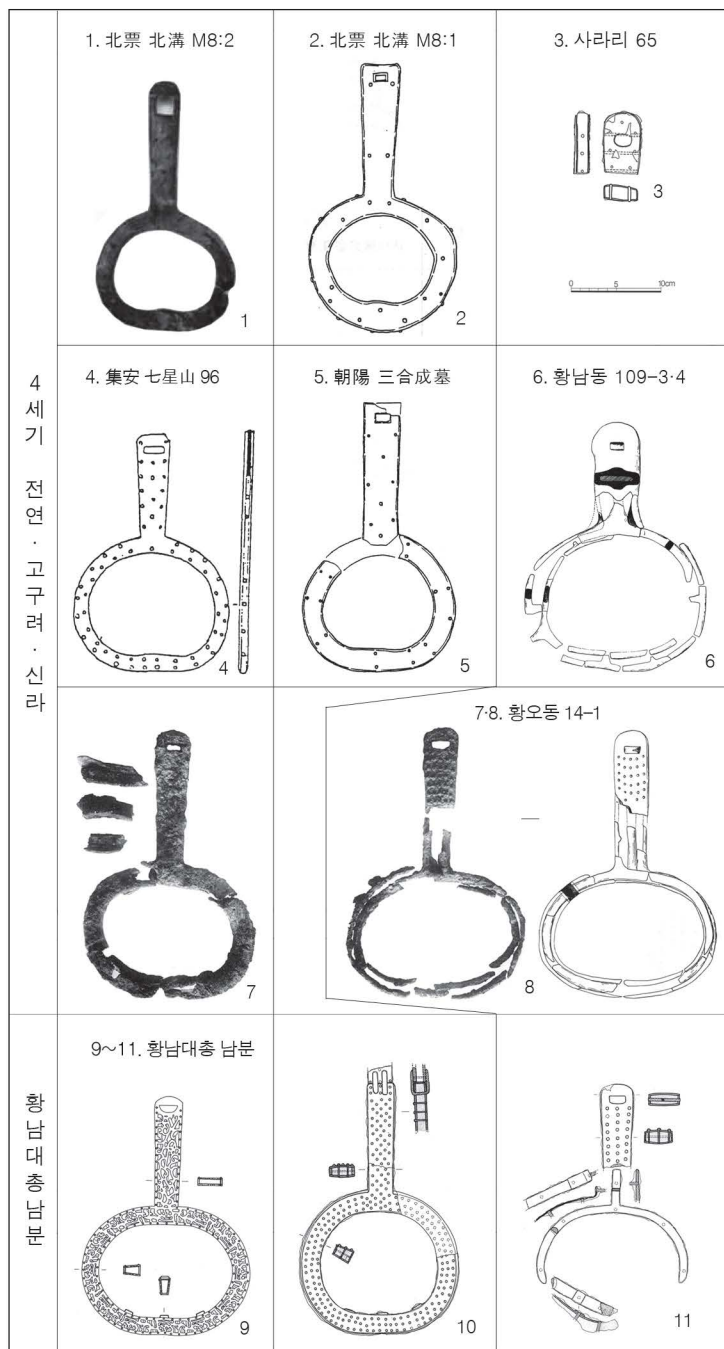
1) 장병등자(도면 7·8)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옥충장식 등자와 직선병두 등자 외에도 여러 점의 목심 장병등자가 출토되었다. 옥충장식 등자는 목심에 옥충 날개를 붙이고 그 위 전면에 용문이 투조된 금동판을 씌운 장병등자이고, 직선병두 등자는 목심 전면에 많은 못을 박아 철판을 씌운 장병등자이다. 이외의 장병등자들은 제작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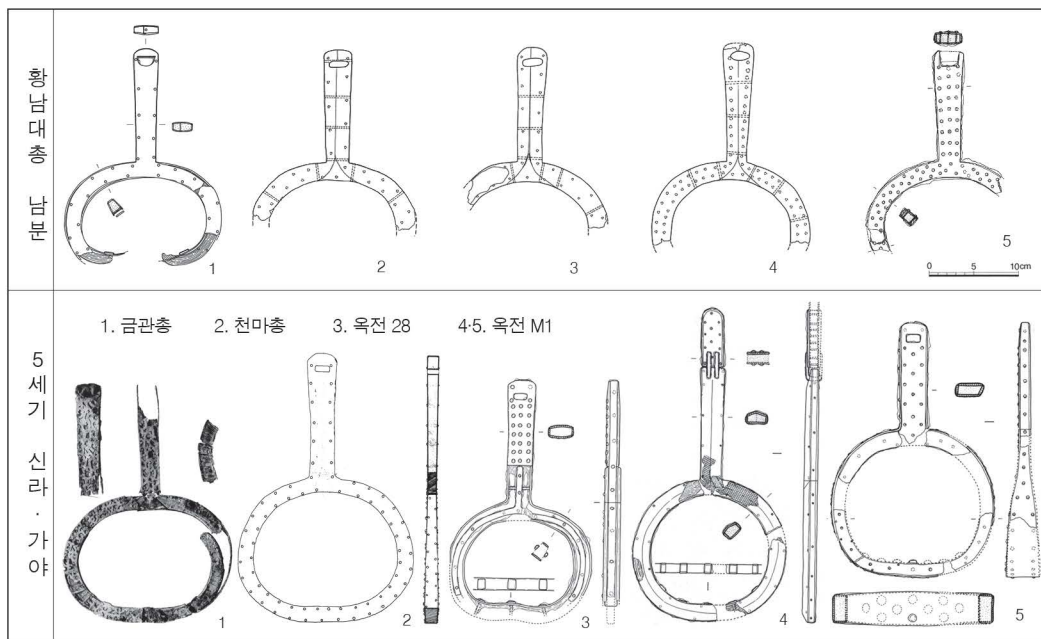
첫째는 모두 윤부가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목심 전면에 금동판이나 철판을 씌운 장병등자로 금동판을 씌운 것 1쌍과 철판을 씌운 것 4종 7점이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병부의 상하폭 차이가 균일하지 않아, 차이가 좀 더 큰 것과 크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철판에 박은 못의 줄이나 수에도 차이가 있어¹³⁾ 형식을 세분할 수도 있

13) 보고서에서는 본고 [도면 8]의 3과 4를 한 쌍으로 하였지만 철판에 박은 못의 줄이나 수가 달라 원래 한 쌍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고 크게 보아 모두를 앞의 옥충장식 등자와 같은 형식에 포함하여 다루겠다.



[도면 7] 황남대총 남분 장병등자와 관련자료(1)



[도면 8] 황남대총 남분 장병등자와 관련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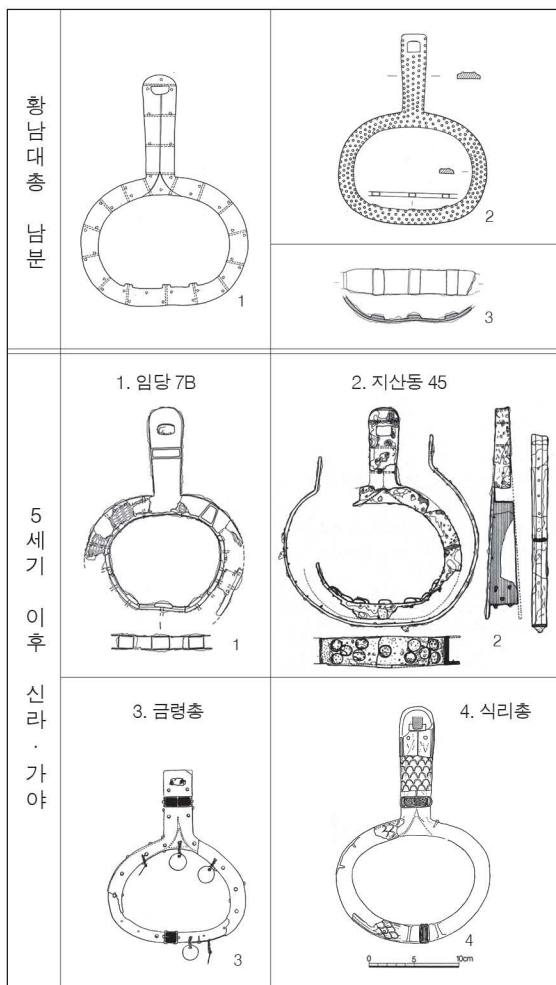
둘째는 병부 중상부는 목심 전후면에 3줄로 못을 박아 철판을 씌우고, 그 아랫 부분의 병부와 윤부 전후면은 목심에 역‘Y’자상 철판으로 보강한 목심등자 1쌍이다. 이 등자도 복원되었을 때 병부는 길었을 것이므로 장병등자로 분류된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목심 장병등자는 이와 같이 5쌍 외 3점이지만 제작방법이나 형태에 따라서는 3종으로 분류된다.

2) 단병등자 및 기타(도면 9)

황남대총 남분에서 단병등자로 분류될 수 있는 등자는 2쌍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쌍은 목심등자이고, 다른 1쌍은 청동제 주조등자이다. 목심등자는 전면에 투조문이 없는 금동판을 씌웠는데, 병두는 둥글고 병부는 아래 쪽으로 약간 좁아졌으며 현수공은 반월형이다. 윤부도 타원형이지만 하단 가운데에는 반전의 기미가 있다. 이 등자는 병부의 길이가 약간 짧고 폭이 넓은 것 외에는 제작법이나 세부 형태가 사실상 앞의 금동판 장병등자와 같다.

청동제 주조등자는 마치 목심등자에 여러 줄의 못을 박은 것처럼 병부 전면에 5줄, 윤부 전면에 3줄의 연주문을 돌출시켰다. 병두는 직선이며, 현수공은 방형이다. 윤부는 하단에 반전의 흔적이 없는 완전 타원형이다.



[도면 9] 황남대총 남분 단병등자와 관련자료

기타로는 윤부 답수부의 철판만 나온 것 1쌍분이 있다. 이 철판 답수부가 별도의 목심등자 답수부인지 아니면 답수부만으로 된 철판등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답수부 철판의 양쪽 끝부분이 약간 좁아진 것이 주목되는데, 윤부의 답수부만 넓어진 것인지, 아니면 윤부 전체는 균일하나 답수부 보강 철판만 넓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고찰은 어렵다.

2. 성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모두 8쌍 외 3점, 형식상으로는 3종의 장병등자와 2종의 단병등자, 그리고 1종의 기타 등자가 출토되었다. 한 고분에서 이와 같이 다종다

양한 등자가 출토된 것은 황남대총이 당시 경주에서는 물론 신라 전체에서 최고 위계의 고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가운데 금동관 목심등자와 청동제 주조등자, 특히 옥충날개와 용문투조금동관으로 장식된 등자는 이 고분의 위계, 곧 피장자의 위상을 반영하는 당시의 최고급 유물이다. 황남대총 남분의 등자들은 이와 같이 당시 경주의 하위위계 고분이나 지방고분과는 격단의 차이가 있는 질적인 위상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양적인 풍부함으로, 당시 등자 사용의 전체적인 양상을 알려주기에 부족한 소형고분이나 지방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여기서는 고분의 위계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신라 등자의 발전과정에서 황남대총 남분 등자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계보

(1) 장병등자

황남대총 남분을 비롯한 신라고분 출토 장병등자의 계보(도면 7 참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옥충장식 등자, 그리고 그와 형식이 같은, 목심 전면에 금동판 또는 철판을 씌운 장병등자는 멀리는 북표 북구 M8:2호 등자, 즉 병두가 둥근 긴 병부의 아래쪽이 좁아지고 윤부가 답수부에 반전이 있는 타원형인 전연시기의 목심 장병등자들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한 전연시기 등자에서 병부의 길이가 약간 짧아지고 윤부도 답수부의 반전이 약화된 타원형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둥근 병두와 아래쪽이 좁아진 병부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직선병두 목심 장병등자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다른 예를 찾기 어려운데, 그 형태로 보아 조양 삼합성묘 등자, 더 멀리는 북표 북구 M8:1호 등자와 같은 전연시기 목심등자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연시기의 직선병두 등자에서 병부가 가늘어졌지만 윤부는 좌우 장경에 비해 상하도 비교적 높은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¹⁴⁾.

다음으로 역‘Y’자상 철대보강 목심 장병등자인데, 이 등자 출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황남대총 남분 이전의 경주 황오동 14호분-1곽 등자이다(조선총독부 1937). 이 고분 보고서에는 앞의 목심 전면철판 장병등자 외에 ‘木心鐵板組合輪燈’이라 이름한 장병등자의 사진과 실측도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진과 실측도는 좀 차이가 있어서, 사진의 등자는 병부가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모습이 전면철판 장병등자와 유사하나 병부에 5줄로 박은 못의 배치가 실측도의 등자와 같고, 실측도의 등자는 병부에 5줄로 박은 못의 배치가 사진과 일치하나 병부의 상하가 균일한 모습이 사진의 등자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진의 등자와 실측도의 등자는 같은 짝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이를 통해 신라에서 황오동 14호분 단계에는 전면에 금속판(금동판, 철판)을 씌운 장병등자와는 제작방법이 다른 별개의 목심 장병등자가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등자는 목심의 병부 중상부에 여러 줄로 못을 박아 철판을 씌우고, 그 아래 전후면에는 전면철판이 아니라 철대로 보강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목심 역‘Y’자상 철대 보강 장병등자는 황남동 109호분-3·4곽이나 동래 북천동 21·22호분 출토

14) 북표 북구 M8:1호 등자의 윤부 형태에 대해서는 본고 주 2참조.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의 짧은 병부를 길게 늘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장병등자는 중국 전연시기 등자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신라의 목심 단병등자에서 병부가 장병화 한, 즉 신라에서 개발된 장병등자로 추측된다¹⁵⁾. 그러므로 이 철대보강 장병등자야말로 단병등자로부터 발전한 장병등자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그 출현 시기는 황오동 14호분 단계 전후이며, 황남대총 남분의 철대보강 등자는 황오동 14호분의 사진 등자에서 못이 3줄로 들어든 것이다.

(2) 단병등자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2쌍의 등자를 단병등자로 분류한 것은 우선 가시적으로 이 등자들의 병부 길이가 앞의 장병등자들에 비해 짧거나 폭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수치상으로도 병부 길이:전체 높이의 비율이 45% 미만으로 45% 이상인 장병등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도면 9 참조).

그런데 그 중 목심 단병등자는 그 제작기법이 이전 시기의 목심 단병등자가 아니라 목심 장병등자를 따른 것이어서 진정한 단병등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등자는, 뒤에서 언급되듯이, 늦은 시기의 상위 위계 고분에 목심 전면을 금동판으로 씌운 단병등자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청동제 주조등자는 제작기법이 전연시기 금동제 주조 장병등자를 따른 것이고 병부 5줄, 윤부 3줄의 연주문도 목심 장병등자에 박은 못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지만, 병부도 짧고 윤부도 답수부에 반전 흔적이 없는 완전 타원형이어서 신라의 목심 단병등자 속성이 반영된 것이다.

2) 황남대총 남분 등자와 신라 등자의 발전

(1) 신라의 주류등자

15) 백제고분인 천안 용원리 9호 석곽묘에서도 이와 같이 철대로 보강한 목심등자가 출토되어 이를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 동래 복천동 21·22호분 등자와 같은 시기로 편년하기도 한다(김일규 2012). 그러나 이는 백제에서 유일한 예이어서 백제 등자의 전후 맥락과 편년부터 살펴 상호 비교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아직 백제 등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지 못하였지만, 천안 용원리 9호 석곽묘 등자는 목심의 측면만 보강한 화천 원천리 33호 주거지 등자, 원천리 등자와 같은 형태로 원래 백제계였을 것으로 보이는 옥전 23호분 출토 등자(경상대학교박물관 1997)에서 발달하여 병두 전후면에도 철판을 보강하고 그 아래를 철대로 보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마도 신라 철대등자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황남대총 남분 등자들은 늦어도 황남대총 남분 단계가 되면 신라에서 주류등자는 단병등자가 아니라 장병등자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황남대총 남분 이후의 경주 적석목곽분에서도 단병등자가 소수 출토되고, 지방고분에서는 경주보다 좀 더 출토예가 많지만, 경주고분에는 대소 구분없이 주로 장병등자가 부장되었고(최병현 1983·1992), 지방고분에서도 장병등자가 주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병등자가 신라 등자의 주류가 된 것은 꼭 황남대총 남분 무렵부터일까? 물론 신라와 가야지역에는 경주에 적석목곽분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목심을 첩관으로 부분 보강한 단병등자가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 적석목곽분인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에도 단병등자가 부장되었고, 동래 복천동고분군에서 여실히 보여주듯이 신라의 지방에서는 그러한 단병등자가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황남동 109호분-3·4곽은 위계가 낮은 소형분이어서 당시 신라고분의 문화상을 전체적으로 대변하지는 못하는데, 그보다 늦은 시기인 황오동 14호분 출토 장병등자가 고구려의 초기 장병등자보다도 오히려 조형에 가까운 고식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보면 신라에는 경주에 적석목곽분이 출현하기 이전에 목심 단병등자가 먼저 도입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적석목곽분이 출현하면서 경주에서는 주로 전연계의 장병등자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지방에서는 단병등자의 발전이 얼마간 계속된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황남대총 남분 이후 머지않아 지방에서도 주류등자는 장병등자로 교체되어 간 것이며, 단병등자는 전통의 잔재로 소수 존재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2) 신라 등자의 형식 변화와 기능의 분화

앞에서 보았듯이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연시기 장병등자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지만, 장병등자들의 병부 길이가 짧아지고 윤부도 답수부 반전이 약화된 타원형으로 바뀐 것은 전연시기 장병등자에서 변화된 점이다. 또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 중에는 장병등자의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진 목심 금동판 단병등자와 윤부에 완전 타원형으로 변화된 단병등자의 속성이 반영된 청동제 주조등자가 존재하고, 신라에서 단병등자로부터 발전된 역‘Y’자상 첩대 장병등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시기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모든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의 윤부에 3개씩의 미끄럼방지 못이 박혀있는 것은 신라 등자의 발전과정에서 큰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들을 제외하면,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들은 아직 전연시기 장병등자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늦은 시기의 발전된 속성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들의 병부는 전연시기 장병등자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타원형 윤부의 답수부에도 아직 반전의 기미가 남아 있어 제작방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각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등자를 그 이후의 발전된 장병등자들과 동열에 놓거나 오히려 늦은 시기로 편년하기도 한다. 모두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이다.

경주 이외의 지방에서 출토된 장병등자 가운데 가장 고식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녕 교동 3호분(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등자들이다. 이 고분에서는 3종의 목심등자가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목심 전면에 철판을 씌운 것으로 병부에는 5줄, 윤부에는 4줄의 못을 박았으며, 병두는 둥글고 병부 아래쪽이 좁아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하폭 차이가 크지 않은 병부에 5줄의 못을 좌우로 엇갈리게 박고, 윤부에는 3줄의 못을 박은 목심등자인데, 파편 상태이어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황남대총 남분의 직선병두 목심등자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머지 하나는 황남대총 남분의 철판등자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교동 3호분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에서와 같이 3종의 목심 장병등자가 출토되었는데, 직선병두 등자의 윤부 답수부에는 미끄럼방지 못의 흔적도 있는 등 형식도 대체로 같다.

그 중 첫 번째 등자의 병부 상하폭 차이가 큰 것이나 못이 5줄인 것은 황남대총 남분 등자보다 고식 속성이어서 교동 3호분의 등자들을 황남대총 남분 등자보다 이른 시기로 편년하기도 한다(白井克也 2003). 그러나 창녕 교동 3호분 출토 신라토기는 황남대총 남분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지역양식이어서 고분의 연대는 황남대총 남분보다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지방이라는 여건상 고분 축조 연대보다 이른 시기의 고식이 매납되었거나 또는 고식속성이 잔존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이상의 경주 황남동 110호분과 황오동 14호분, 그리고 창녕 교동 3호분 등자 외에 신라와 가야 고분 출토 장병등자들은 모두 황남대총 남분 등자보다 시기도 늦고 형식도 발달된 것이다. 그런데 황남대총 남분 전과 후의 장병등자 형식변화를 보면, 황남대총 남분 무렵까지는 목심 금동판등자와 철판등자 사이에 형식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는 각각 변화의 속도가 달라 형식 변화에 차이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도면 8 참조). 금관총과 천마총의 등자에서 보듯이 금동판등자는 변화 속도가 느려 늦은 시기까지도 병부나 윤부에 고식 속성이 지속된 반면, 전면철판 등자는 변

화 속도가 빨라 병부도 세장해지지만 윤부는 답수부가 넓어지거나 두세 가닥으로 늘어나기도 하여 기능성을 높였으며, 또 목심없는 철판등자로 전환되기도 하였다(최병현 1983 · 1992). 천마총에서는 고식속성을 유지한 목심 금동판등자와 윤부의 답수부가 2줄로 갈라진 목심 철판등자가 공반되어 그와 같은 현상이 잘 대비된다.

이는, 황남대총 남분 무렵까지의 신라고분에서 목심에 금동판을 씌운 장병등자와 철판을 씌운 장병등자는 다만 고분 피장자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 어느 때부터 여기에 (투조)금동판 등자는 의장용의 장식등자로서, 철판등자는 실용등자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더해져 각각 변화의 내용과 속도를 달리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한 현상은 소수 잔존한 단병등자에서도 확인된다(도면 9 참조). 박천수(2010)는 임당 7B호분이 황남대총 남분보다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고 주장하지만 임당 7B호분은, 신라 전기양식토기 지역양식의 자체 변화가 진행된 출토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도, 소형화된 단병등자의 형식으로 보아도, 황남대총 남분 다음 단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황남대총 남분에서 멀리 않은 시기인 임당 7B호분의 단병등자는 아직 윤부의 답수부 너비에 변화가 없지만, 그보다 시기가 많이 내려오는 고령 지산동 45호분의 단병등자에서는 병부에 비해 윤부 폭이 훨씬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단병등자이면서도 목심 전면에 금동판을 씌운 금령총의 윤부 삼각형 등자와 식리총의 윤부 타원형 등자는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병부도 고식 속성이 여전하지만, 윤부에서도 답수부의 변화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금령총의 삼각형 등자의 규모가 작은 것은 이 고분의 연소한 피장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병부가 약간 긴 편인 식리총의 단병등자는 그것이 신라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이 등자가 식리총의 많은 외래계 유물들(馬目順一 1980)과 함께 백제-남조계의 이입품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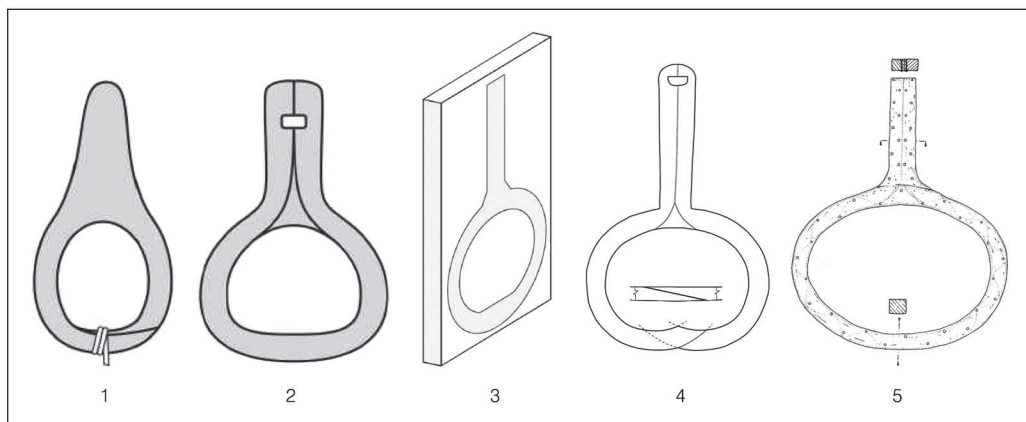
Ⅵ. 목심등자 제작기법의 변화와 신라 초기 등자의 편년

1. 목심등자 제작기법의 변화(도면 10)

중국의 田立坤(2012)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출토된 목심등자에서 나무의 결을 관

찰하여 목심의 제작기법을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북표 라마동 M266호묘 등자의 제작기법으로, 줄기에서 3개의 가지가 뻗은 나무에서 가운데 가지를 제거하여, 줄기를 병부로 그 좌우 가지를 구부려 윤부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屈木爲鐙이라 하였다. 둘째는 풍소불묘 등자 제작기법으로 1매의 나무를 구부려 윤부와 병부를 만들고, 나무의 양쪽이 합해지는 병부 하단 부분에 켜기를 박은 것이다. 이를 揉木爲鐙이라 하였다. 셋째는 길림 모아산 출토 부여 등자에서 관찰한 것이라 하며, 1매의 판자에서 목심을 파내어 만든 것으로, 이를 斫木爲鐙이라 하였다. 그리고 윤부 타원형의 목심 장병등자는 모두 이 斫木爲鐙인데, 금동제 주조등자는 그 중 윤부의 답수부가 반전된 斫木爲鐙 양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田立坤의 분류 가운데 풍소불묘 등자 제작기법은 일찍부터 알려진 것이고, 북표 라마동 M266호묘 등자의 제작기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세 번째의 斫木爲鐙은 그가 실제 등자를 관찰하여 알아낸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아무리 질긴 재질의 나무라 해도 판재에서 파낸 목심으로는 윤부 하단이 발에 실린 사람의 몸무게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田立坤의 세 번째 기법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 대신 다른 한 가지 기법이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풍소불묘 등자와 같은 기법이기는 하지만 1매의 나무가 아니라 2매의 나무를 구부려 [도면 10]의 4와 같이 결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제작기법을 아직 등자의 실물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타원형 윤부의 답수부 가운데에 위로 솟은 반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 나무를 결합할 때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도면 10] 목심 제작기법(1~3. 田立坤 2012에서, 4. 필자 작도, 5. 천마총)

목심등자의 목심 제작기법으로 이와 같이 1매식과 2매식이 있었다면, 1매식은 동래 복천동고분 출토 윤부 삼각형 등자와 풍소불묘 등자로 보아 원래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의 제작기법이었을 것이고, 2매식은 답수부가 반전된 윤부 타원형인 전연시기 북표 북구 M8호묘 목심등자와 금동제 주조등자들로 보아 원래 장병등자의 제작기법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동래 복천동고분군 출토 등자는 윤부 삼각형 등자뿐만 아니라 윤부 타원형 등자도 단병등자였으며, 그 철판 보강 방식도 장병등자의 전면식이 아니라 단병등자의 부분 보강식이었다. 그러면 윤부 답수부가 반전된 동래 복천동 35·36호분과 21·22호분의 단병등자는 어떻게 해서 출현한 것일까?

여기서 동래 복천동고분군 출토 초기 단병등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윤부 타원형 등자와 삼각형 등자 사이에 전체 규모와 병부 형태의 차이가 있었고 발전 방향도 각각 달랐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 병행기에 처음 출현한 복천동 35·36호분의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는 1Ab기 병행기의 김해 대성동 1호분 등자는 물론 1Ba기 병행기 신단계의 복천동 21·22호분 출토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에 비하여 전체 규모도 월등히 크고 병부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 출토 단병등자도 윤부 하단의 반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는 신라의 초기 단병등자 가운데 윤부 삼각형 등자와 타원형 등자는 원래 같은 계보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런데 그 중 윤부 삼각형 등자의 실물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풍소불묘 등자가 유일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서기 302년의 長沙 金盆嶺 21호묘 도용에는 외곽 삼각형 등자가, 322년의 南京 象山 7호묘 도용에는 삼각형의 쌍등자가 달려 있어서 삼각형 등자의 출현과 실용은 4세기 전반기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에 처음 도입된 목심등자는 그러한 윤부 삼각형의 목심등자이거나, 또는 목심 제작기법이 그와 같은 1매식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윤부 타원형의 단병등자는 그보다 늦게 신라에 출현하였는데, 윤부 삼각형 등자와는 규모도 다르고 철판 보강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병부 하단과 윤부 전후면에는 철판이 아니라 철판을 박아 보강하였으며, 이후의 발전방향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여기서 신라의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는 원래 단병등자의 계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라에 장병등자가 도입되어 신라에서 발생한, 즉 신라한 장병등자가 재지의 단병등자와 절충되어 출현한 신라식 단병등자였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현재까지 답수부가 반전된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단기

간 존재하다 답수부가 반전되지 않은 완전 타원형 윤부의 단병등자로 전환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추론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전제하면 신라 초기 목심등자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에 신라와 가야지역에 처음 도입된 목심등자는 1매의 나무를 구부려 만든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이거나, 또는 목심 1매식의 소형 등자로 병두부나 병부와 윤부 결합부 등 취약부분만 철판으로 보강하다가 곧 병부를 2단으로 보강한 등자로 발전하였다.

○ (아직 출토예가 없지만) 신라에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에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함께 2매의 나무를 구부려 만든 목심 2매식의 윤부 타원형 장병등자가 도입되었다. 아마도 그러한 초기 장병등자는 경주의 황남동 109-호분 3·4곽보다 상위 위계의 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 대형분에서 출토될 것이다.

○ 신라에서는 이 장병등자와 재지의 단병등자가 절충되어 답수부가 반전된 목심 2매식의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가 출현하여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와 함께 철판 보강방식이 다른 여러 갈래의 단병등자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는 규모가 점차 커지고 병부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반면, 출현시 장병등자의 속성에 따라 전체의 규모도 크고 병부도 긴 편이던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는 그와 반대로 전체 규모가 작아지고, 장병등자의 변화과정과 같이, 병부도 가늘어지는 방향으로 변천되었다. 한편으로 역‘Y’자상 철판으로 보강한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의 한 갈래는 다시 철판대식 장병등자로 발전하였다.

○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는 소형화하면서 목심의 제작기법도 1매식으로 변하여 단병등자의 목심 제작기법은 다시 1매식으로 통합되었는데, 그 시기는 아마도 단병등자의 철판 보강방식이 2단식에서 1단식으로 통일되는 동래 복천동 10·11호분 단계, 즉 신라 전기양식토기 2a기 전후일 것이다¹⁶⁾. 그러나 그 윤부 형태는 답수부의 반전이 없는 완전 타원형이 되어 삼각형과는 다른 차별성을 유지하였다. 일본의 七觀

16) 본고가 완성된 뒤 창녕 동리 유적 I 보고서(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가 전달되어, 그 5호분에서 목심 단병등자가 출토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등자는 윤부 타원형의 단병등자로 병부의 현수공을 포함한 병두부는 철판으로, 그 이하 병부와 윤부 전후면은 역‘Y’상 철판으로 보강한 것인데, 그 실측도는 하단에 보강철판대가 없는 한 짝의 윤부는 완전 타원형으로, 하단에 보강 철판대가 있는 다른 한 짝의 윤부는 답수부가 반전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 고분 출토 토기는 창녕양식토기 발생기로 필자의 신라 전기양식토기 1Bc기 병행기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해 동래 복천동 21·22호분에 이어 신라 전기양식토기 1Bc기까지는 답수부가 반전된 윤부 타원형의 단병등자가 존속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분 등자, 그리고 소형화 한 新開고분 등자, 한국의 임당 7B호분과 지산동 45호분 단병등자의 윤부가 답수부의 반전이 없는 완전 타원형이 된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이 추론할 수 있는데, 한편 천마총 출토 목심 금동관등자들을 통해 장병 등자의 목심 제작기법에도 어느 때부터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마총에서는 3쌍의 목심 금동관등자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2쌍은 발굴당시 금동관이 덮여 있는 상태여서 목심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지는 못하였지만, 윤부 하단에 반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목심이 2매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나머지 한 쌍은 목심 위에 얇은 금박을 입혔으나 대부분 탈락되어 목심의 관찰이 가능하였는데, 1매의 나무로 제작된 것이었다(도면 10의 5)¹⁷⁾. 그런데 이 등자의 병부는 현수공 이상이 결실되었지만 상하폭이 같은 세장한 형태였고, 윤부도 답수부의 반전이 없는 완전 타원형으로 복원되었다. 이와 같이 천마총 등자를 통해 장병등자의 목심 제작기법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과 하단부 반전이 없는 완전 타원형 윤부의 출현이 그와 관련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여기서 고구려 장병등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장천 M4호분이나 만보정 78호분의 병부가 세장하고 윤부가 완전 타원형인 장병등자도 목심 1매식 장병등자의 출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 목심 1매식의 장병등자가 출현한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우산 41호분과 지경동 1호분의 연대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 앞에서 보았듯이 ‘고식등자’와 ‘신식등자’라는 용어는 小野山節 이래로 오류와 착각으로 점철되어 더 이상 학계에서 그 선입관을 벗어나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굳이 ‘고식등자’와 ‘신식등자’를 구분하려 한다면 단병등자와 장병등자가 아니라, 장병등자는 목심이 2매식인 고식등자와 1매식인 신식등자로, 단병등자도 소형화 되기 이전 부분 철판 보강식의 고식등자와 소형화되거나 전면 금속판식의 신식등자로 구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신라 초기 등자의 편년

1) 신라 등자 편년의 전제

현재 한국 학계의 일각에서는 미리 정해진 두 개의 전제 아래 등자를 비롯한 신

17) 보고서에 수록된 이 등자의 실측도는 필자가 직접 작도한 것이다.

라·가야 고고학자료를 편년하고 있다. 하나는 풍소불묘 등자설이고, 다른 하나는 경주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이다. 서기 400년 고구려군 남정설을 따르는 연구자는 물론 둘 다를 전제하지만, 풍소불묘 등자설이나 고구려군 남정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로 나온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藤井和夫 1979)을 따름으로써 풍소불묘 등자설과 고구려군 남정설 고수에 일조하는 연구자들도 있다(김용성 2003, 박천수 2010:111).

이들의 편년표에서는 대개 415년의 풍소불묘 등자가 신라와 가야의 모든 등자 앞에 놓이고, 황남대총 남분 등자는 5세기 후반의 다른 유적 등자들과 함께 배치된다. 다만 근대에 들어 병부와 윤부의 결합부 일부에만 철판이 보강되고 병두부는 철판이 보강되지 않은 신라와 가야의 초기 등자만 서기 400년 직전에 배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뿐이다(김두철 2000, 신경철 2009, 류창환 2012)¹⁸⁾. 이들의 편년표에서는 등자의 실제 발전과정이나 형식조열은 무시되거나 의미를 갖지 못하며, 전연시기 장병 등자를 제외한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들은 모두 5세기 이후로, 특히 신라의 장병등자들은 모두 5세기 후반 이후로 배치된다. 심지어 다른 등자들은 자신이 파악한 형식조열에 따라 배열하여 분기를 나누고도 풍소불묘 등자는 그와 상관없이 생뚱맞게 가장 앞에다 배치하고, 황남대총 남분 등자는 또 그 형식과 관계없이 훨씬 발달된 등자들과 함께 같은 열에 내려놓는 식이다(김일규 2012). 모두 다 풍소불묘 등자설과 황남대총 남분 눌지왕릉설을 고정관념으로 전제한 결과이다.

그러한 한국 학계의 영향 때문인지 일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연구자들의 마구연구에서도 예외없이 한국 삼국시대 등자는 모두 풍소불묘 뒤의 5세기 이후로 편년되고, 황남대총 남분 등자는 역시 5세기 후반 이후로 배치되고 있다(白井克也 2003, 桃崎祐輔 2006, 諫早直人 2012).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가장 윗단에 鞍塚고분이나 七觀고분 등자 같은 일본 출토 한국식 등자를 한국 출토 등자와 나란히 배열하여 한국과 일본열도의 등자 출현을 같은 시기로 편년하기도 하고(鈴木一有 2014:363), 한국 삼국시대 등자와는 형태가 다른 奈良 纏向유적 출토 등자를 한국 삼국시대 등자들보다 앞으로 배치하여 일본열도에서 등자 출현이 한국보다 빨랐던 것

18) 그러나 앞에서 살폈듯이 사리리 65호분의 병두부만 보강한 등자, 중산리 1B-1호분의 병부와 윤부 결합부만 보강한 등자, 대성리 1호분의 병부 이하를 2단으로 보강한 등자는 모두 필자의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이거나 그 병행기로 같은 시기 것들이다. 그리고 논리 전개상 번거로움을 피하여 본고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북천동 48호분과 60호분 출토 병부와 윤부 결합부 보강 등자도 같은 시기 것으로 판단된다(본고 주 7 참조)

으로 편년하기도 한다(桃崎祐輔 2006).

등자에 대한 그러한 고정관념은 등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고학자료의 편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처음부터 등자 출토 고분을 의식하여 고분 구조나 유물의 형식조열을 왜곡시키기도 하고(東潮 1988 · 1993), 심지어는 배치된 형식조열 속에 등자 출토 유적이나 공반유물을 연대만 맞추어 끼워넣음으로써 잘 짜여진 형식조열을 파괴해 버리기도 한다(緒方泉 1985). 모두 다 고고학자료 해석의 객관성 확보는 도외시키고, 풍소불묘 등자설에 맞추거나 穴澤-小田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중국 동북지방의 전연시기 등자의 등장에서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등자 발전과정, 그리고 황남대총 남분 등자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 논리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신라 등자의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등자 자체의 상대순서나 공반된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분기를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필자가 연대를 앞세우지 않고 그와 같이 설명해 온 것은 특정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없이 등자 자체로서 그 발전과정을 파악해 보자는 뜻에서였다. 그 결과 신라 등자의 발전과정은 등자들과 공반한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상대편년과 모순이나 충돌 없이 서로 잘 일치되었다.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라 초기양식토기와 성립기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편년을 다룬 필자(2012 · 2013)의 전고에서는 토기의 상대편년이나 절대연대 설정에 토기와 공반되는 재갈의 변화도 연동하여 살펴보았으므로 토기와 재갈과 등자의 변화가 모두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415년 풍소불묘의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는 그 자체가 신라의 초기 등자 중 동래 복천동 10 · 11호분 출토 윤부 삼각형 단병등자보다도 더 발전된 것이고, 5세기 초로 편년되는 일본의 新開고분 출토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도 동래 복천동 10 · 11호분 출토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보다 늦은 형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북연 풍소불묘 등자와 일본 新開고분 등자는 양자가 함께 신라의 초기 단병등자, 그리고 이들과 병행기의 장병등자 연대가 그 이전임을 증명할 뿐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5세기 초로 편년되는 七觀고분 등자는 新開고분 등자보다 고식이고, 동래 복천동 10 · 11호분 등자 이상의 고식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七觀고분의 외래계 유물과 재지계 유물의 연대차일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허구의 풍소불묘 등자설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穴澤-小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보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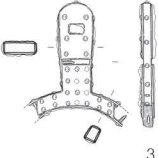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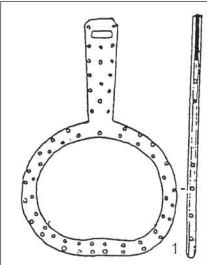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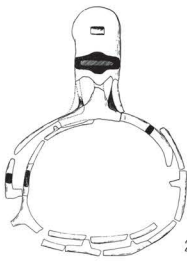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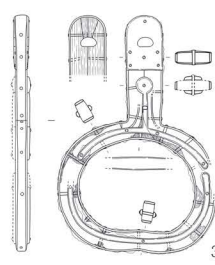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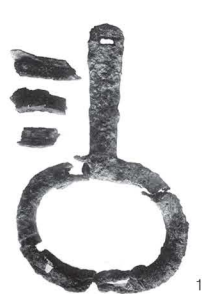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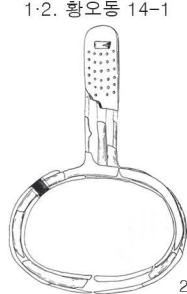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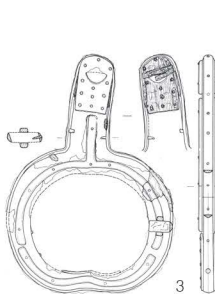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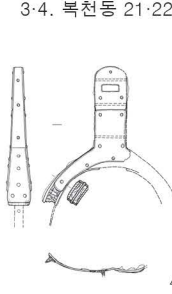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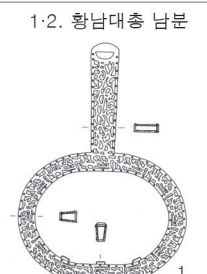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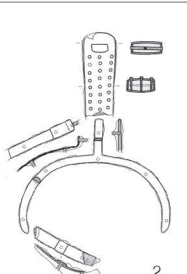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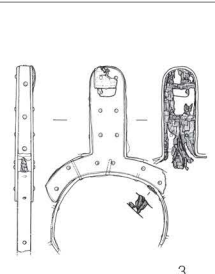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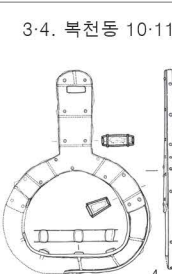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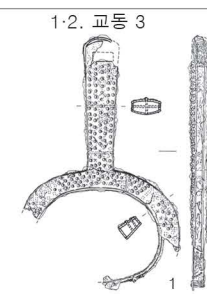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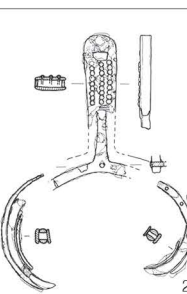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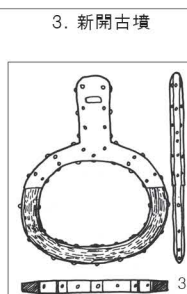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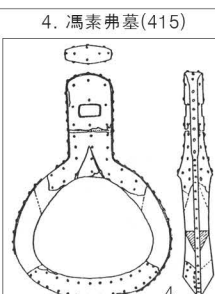
한편 황남대총 남분 능지왕릉설은 애초에 풍소불묘 등자설을 전제로 한 편년에서 나온 것인데(藤井和夫 1979), 풍소불묘 등자설 자체가 허구임으로 그것은 이미 기본 전제 자체가 상실된 것이다. 그러나 황남대총 남분 능지왕릉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았다.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본고의 대상인 등자 외에 신라토기의 형식분류 및 편년과 관련된 것, 과판 등 금공품의 투조용문에 대한 것, 왜계 철촉에 대한 것, 그리고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배치에 대한 것 등이다. 이 중 신라토기 편년과 관련된 것 일부와 왕릉의 배치 문제는 이미 전고(최병현 2014)에서 밝혔듯이 황남대총 남분 능지왕릉설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에 이어지는 별고에서 곧 밝힐 예정이지만, 그것들 중에도 황남대총 남분 능지왕릉설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신라 등자의 편년은 풍소불묘 등자설이나 황남대총 남분 능지왕릉설과 같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고학적 방법에 의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2) 신라 초기 등자의 편년(도면 11)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학계에서 신라와 가야 고분의 연대는 중국 동북지방 또는 일본 출토 고고학자료와 교차편년을 통해 비정되어 왔다. 필자(1992)는 처음부터 穴澤啄光의 풍소불묘 등자설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과거에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자료와 교차편년하여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 시기와 황남대총의 연대를 설정한 바 있다. 그 후 이희준(1995)은 황남대총의 연대 비정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을 정리하면서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계 및 고구려 마구, 그리고 기타 고구려 고분 자료와 교차편년하여 황남대총의 연대를 5세기 전엽으로, 그 중 남분은 5세기 초, 남분의 뒤에 축조된 북분은 5세기 전엽말로 비정하였다. 이희준의 편년안은 필자의 안에 비해 더 늘어난 자료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통해 설정된 것이어서 필자는 그의 연대관을 수용하였다(최병현 2000). 다만 그는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를 5세기 초라고 하였지만, 실제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는 4세기 후엽인 칠성산 96호분 및 마선구 1호분과 5세기 전엽인 만보정 78호분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이어서 사실은 4세기 말~5세기 초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희준의 견해를 따르되 4세기 말~5세기 초로 그 표현을 수정하였다.

한편 필자의 전고(2013)에서는 일본 고분시대 초기須惠器의 연륜연대를 수용하

분기	장병등자	단·장병등자	단병등자 1	단병등자 2	토기 분기
1A			1. 北票 北溝 M8:2 2. 사라리 65 3. 대성동 1	 0 5 10cm	350 신라 전기 1Ab
1Ba				1. 集安 七星山 96 2. 황남동 109-3-4 3. 복천동 35-36	370 1Ba
1Bb		1-2. 황오동 14-1 		3-4. 복천동 21-22 	380 1Ba 신라 단기 1Bc
2a	1-2. 황남대총 남분 			3-4. 복천동 10-11 	400 2a
2b	1-2. 교동 3 		3. 新開古墳 	4. 馮素弗墓(415) 	2b

[도면 11] 신라 초기 등자 편년표

여 신라 전기양식토기 1B기의 연대를 4세기 후엽으로 설정하였다. 일본 초기須惠器는 TK73형식이 奈良 佐紀유적 SD6030에서 412년의 연륜연대를 갖게 되는데 이어, TG232형식도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에서 389년의 연륜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TG232호 요의 초기須惠器는 한국의 동래 복천동 21·22호분 단계부터 10·11호분 단계까지, 또는 53호분 단계까지의 시간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최병현 2013). 필자의 전고에서는 동래 복천동 21·22호분은 경주 황남동 109호분-3·4곽이 속한 1Ba기의 신단계와, 복천동 10·11호분과 39호분 및 53호분은 경주 황남동 110호분이 속한 1B기와 병행기로 보아, 신라 전기양식토기 1B기를 포괄적으로 4세기 후엽으로 설정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고의 병행기 판단에는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동래 복천동 21·22호분은 문제가 없으나, 10·11호분, 39호분, 53호분은 경주 황남동 110호분이 아니라 그 뒤인 경주 황남대총 남분이 속한 2a기로 내려오는 것을 새로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389년의 연륜연대를 가진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의 초기須惠器가 복천동 21·22호분~53호분 사이, 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2a기 사이의 어느 단계와 관련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생겼다. 토기 문제에 대한 것은 곧 별고에서 밝히겠지만, 검토 결과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에서 출토된 초기須惠器 중에는 그 기형이 동래 복천동 21·22호분 출토 토기에서 온 것도 있지만, 기형과 문양이 합천 옥전 23호분 출토 토기와 관련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합천 옥전 23호분에서는 경주산으로 보이는 신라토기 고배 2점이 공반되었는데, 경주의 신라 전기양식토기 1Bb기 형식의 고배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의 연륜연대 389년은 신라 전기양식토기 1Bb기에서 1Bc기로 전환되는 무렵에 적용하여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¹⁹⁾. 동래 복천동 10·11호분 등의 병행기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2a기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지만 신라 전기양식토기 1B기의 연대는 4세기 후엽 그대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해 온 신라 초기등자의 발전과정을 종합하여 편년하면 다음과 같다.

19)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에서 출토된 뚜껑들은 현재의 자료로써는 복천동 53호분 출토 고배 뚜껑들과 가장 가깝다. 그러나 복천동 53호분보다 이른 시기인 복천동 21·22호분에는 그와 같은 계열의 고배와 뚜껑 자체가 부장되지 않아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의 뚜껑이 꼭 복천동 53호분 단계의 것인지 그 앞 단계부터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 등자 1A기: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등자의 도입기로 신라 전기양식토기 1A기와 그 병행기의 목심등자들이다. 목심은 1매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병두부나 병부와 윤부의 결합부만 철판으로 보강하거나 병부 이하를 2단의 철판으로 보강한 단병등자가 사용되었다.

신라 전기양식토기 1A기는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므로, 현재까지 신라·가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와 그 병행기 등자는 4세기 중엽의 후반기, 즉 450년 직후쯤으로 편년된다. 앞으로 더 이른 시기 등자가 출토되면 소기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편년표의 이 단계에 북표 북구 M8:2호 목심등자를 배치한 것은 그 연대가 이 단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라 장병등자의 계보를 나타내기 위한 것뿐임을 부기해둔다.

○ 등자 1Ba기: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의 등자들이다. 아마도 경주에는 이 단계에 목심 2매식인 장병등자가 도입되었을 것이고, 그와 절충된 목심 2매식의 윤부 타원형(도하트형)의 철대보강 단병등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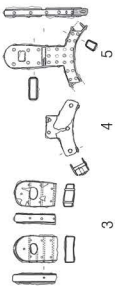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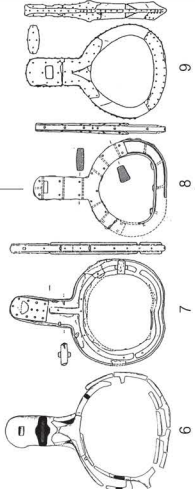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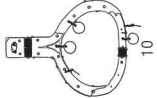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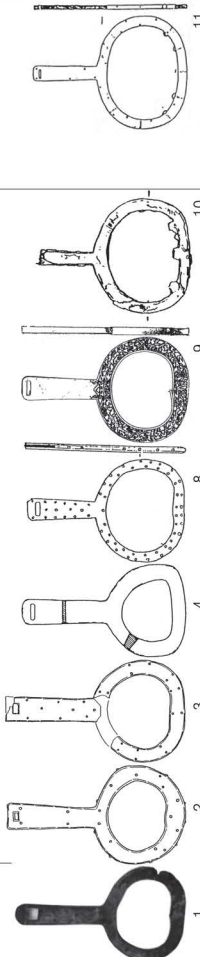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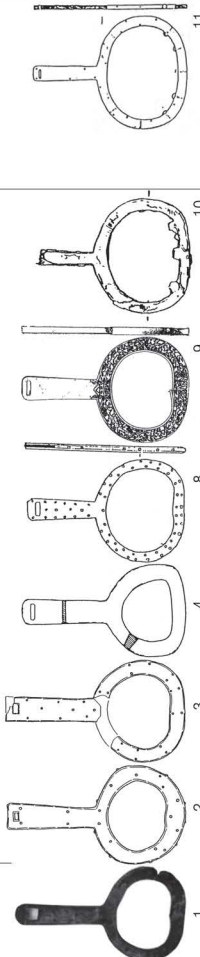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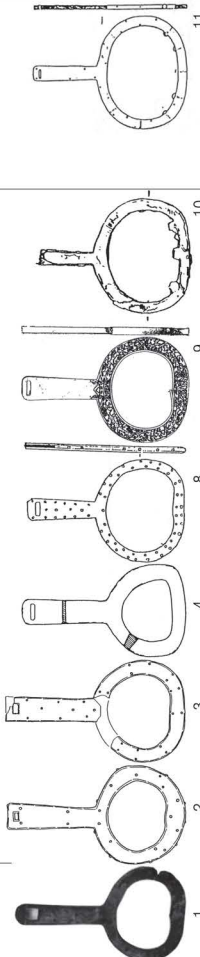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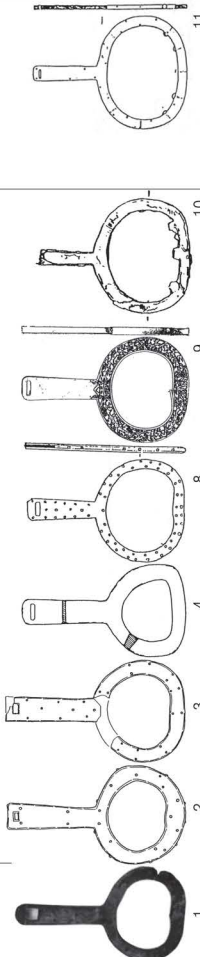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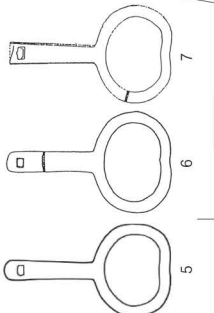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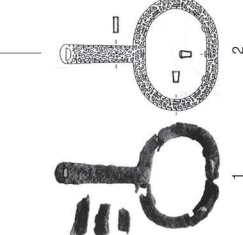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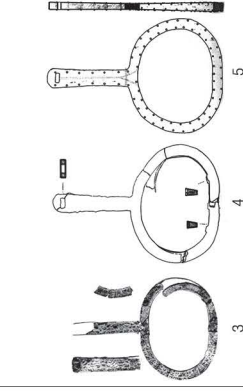
신라에서 아직 이 단계 장병등자의 실례가 없어 편년표에는 칠성산 96호분 출토 고구려 등자를 배치하였는데, 이 단계 신라 장병등자의 병부는 병두가 직선에 가까운 칠성산 96호분 등자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황오동 14호분 장병등자와 같이 둥근 병두에 좀 더 긴 병부였을 것이다.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 출토 초기須惠器보다 이른 단계이므로 그 연륜연대 389년에 의해 그 이전 4세기 후엽 초로 설정된다.

○ 등자 1Bb기:현재로서는 세분이 불가능함으로 신라 전기양식토기 1Ba기 신단계부터 1Bc기까지의 등자를 포함하여 둔다. 장병등자로는 원래의 전면 금속판 등자, 이전의 단병 철대등자에서 장병화한 철대장병등자가, 단병등자는 목심 1매식의 윤부 삼각형과 목심 2매식의 답수부가 반전된 윤부 타원형(도하트형) 등자가 공존하였다. 그 외 고리형 현수공의 목심 단병등자도 존재하였다.

京都 宇治市街유적 SD302 출토 일본 고분시대 초기須惠器의 연륜연대 389년이 이 분기에 들어감으로 등자 1Bb기는 380년대부터일 것으로 판단된다.

○ 등자 2a기:신라 전기양식토기 2a기 등자이다. 장병등자로는 전면 금속판 등자와 철대등자, 단병등자로는 목심 2매식이 소멸되어 목심 1매식의 윤부 타원형과 삼각형 등자가 공존하였다. 이 단계의 신라등자 윤부에 3개씩의 미끄럼방지 못이 출현한다.

350		400	450	500
한국의 고대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한국의 고대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1. 1 2. 2 3. 3 4. 4 5. 5	 1. 1 2. 2 3. 3 4. 4 5. 5

[도면 12] 초기 등자의 변천도(최병현 2013 수정)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에 따라 서기 400년이 사실상 그 하한이 된다.

○ 등자 2b기:신라 전기양식토기 2b기의 등자이다. 등자의 종류와 형식이 2a기에 서 큰 변화는 없으나 윤부 타원형 단병등자는 이 단계부터 급격히 소형화 하였을 것이다.

풍소불묘 등자와 일본 新開高분 등자에 의해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이상 본고에서 논해온 내용을 반영하여 필자(2013)의 전고에 게재한 초기 목심등자 편년표를 수정하여 [도면 12]로 첨부하여 둔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중국 전연시기의 출현기 등자에서부터 고구려와 신라를 중심으로 초기 등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는 서기 4세기부터 공존하면서 각각 발전한 것으로 초기 단병등자의 발전과정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신라·가야고분에서 볼 수 있었고, 전연시기 장병등자는 고구려와 신라의 초기 장병등자로 이어져 발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단병등자와 장병등자를 ‘고식등자’와 ‘신식등자’로 구분한 것은 처음부터 오류였다. 한편 평성 지경동 1호분 출토 고구려 등자를 통해서는 등자 윤부의 답수부에 미끄럼방지 못의 출현시기를 알 수 있었고, 다종다양한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는 신라 등자의 계보를 잘 설명해주는 동시에 그 형태와 제작기법이 아직 전연시기의 등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초기 등자의 발전과정을 살피면서, 소위 풍소불묘 등자설이 그동안 한·일 학계에 얼마나 뿌리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놓았는가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본고의 앞에서 이미 다 살폈으므로 다시 장황하게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풍소불묘 등자설은 애초부터 근거도 없었고, 그것이 허구였음도 곧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제기해 놓은 고구려군 남정설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예 고정관념으로 굳혀 놓았다. 또 일본 학계에서는 풍소불묘 등자설, 그리고 그에 의해 생겨난 穴澤-小田 프레임을 한국 삼국시대와 일본 고분시대 등자의 편년에 이용하여 일본열도에서 마구의 등장시기를 한반도와 대

등하게 올려놓거나 오히려 역전시키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신라토기와 신라등자를 편년하면

- 경주 월성로 가-31호분 출토 왜계토기와 일본 고분시대 土師器의 연대관에 따라 설정되는 신라 초기양식토기 2b기의 연대:4세기 전엽
- 신라 초기양식토기 2b기의 연대와 일본 고분시대 초기須惠器의 연륜연대로 설정되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1A기의 연대:4세기 중엽
- 중국의 田立坤에 의해 고정된 安陽 孝民屯墓의 연대:352년 이후 하한 370년, 朝陽 袁台子壁畫墓의 연대:366년 또는 356년
- 신라 전기양식토기 1Ab기인 신라의 등자 초현 연대:4세기 중엽 후반
- 京都 宇治市街유적의 일본 고분시대 초기須惠器 TG232 형식 연륜연대:389년
- 京都 宇治市街유적의 초기須惠器에 의해 설정되는 신라 전기양식토기 1B기의 연대:4세기 후엽
- 중국 동북지방 고분과 마구자료로 교차편년된 신라 전기양식토기 2a기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4세기 말~5세기 초
- 奈良 佐紀유적의 연륜연대에 의한 일본 초기須惠器 TK73 형식의 연대:412년
- 北燕 馮素弗墓의 연대:415년
- 일본 新開고분과 七觀고분의 연대:5세기 초
- 이들에 의한 신라 전기양식토기 2b기의 연대:5세기 전엽

이 모순이나 충돌 없이 모두 정합성을 갖게 되고, 한·중·일 삼국 고고학자료의 자연스러운 변천과정과 상호 영향 관계가 무리 없이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학계의 일각에서는 물질자료인 고고학자료 연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고고학자료 해석의 객관성 검증과 확보는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결론만 반복·재생산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한·일 학계의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학문의 세계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일한 연구 방식이 수십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이로 인하여 왜곡된 사실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지난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國文-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7, 『陝川玉田古墳群Ⅵ-23・28號墳-』.
- 慶星大學校博物館, 2010, 『金海大成洞古墳群Ⅳ』.
-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5, 『고대 한국의 Global Pride 고구려』.
- 金大煥·諫早直人·金恩鏡, 2008, 『慶州 皇南洞 110號墳 出土 馬具 再報告』『嶺南大學校博物館年報』7, 嶺南大學校博物館.
- 金斗喆, 2000, 「韓國 古代 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金龍星, 2003, 「皇南大塚 南墳의 年代와 被葬者 檢討」『韓國上古史學報』42, 韓國上古史學會.
- 김일규, 2012, 「可樂洞 二號墳의 編年」『可樂洞 二號墳』, 서울문화유산연구원.
-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昌寧校洞古墳群』.
- 류창환, 2012, 『가야마구의 연구』, 서경문화사.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
- 박경신, 2006, 「高句麗의 炊爨施設 및 煮沸容器에 대한 一研究」『崇實史學』19, 崇實大學校 史學會.
- 朴淳發, 2005, 「鎬斗考」『東亞考古論壇』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 박진욱, 1986, 「고구려의 마구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986-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박창수, 1986, 「평성시 지경동 고구려무덤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1986-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朴天秀, 1998, 「大伽耶圈 墳墓의 編年」『韓國考古學報』39, 韓國考古學會.
- ,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 , 2012, 「新羅·伽倻古墳 歷年代 再論」『原三國·三國時代 歷年代論』, 세종문화재단연구원 학술총서3, 학연문화사.
- 복천박물관, 2009, 『복천동고분문화 토기편』.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Ⅰ』.
- ,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
- , 1996, 『東萊福泉洞古墳群Ⅲ』.
- , 2012, 『동래복천동고분군Ⅳ』.
- 申敬澈, 1985, 「古式鎬子考」『釜大史學』9, 釜山大學校 史學會.
- , 1989, 「伽耶의 武具와 馬具」『國史館論叢』7, 國史編纂委員會.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慶山林堂洞遺蹟Ⅱ』.
- , 2007, 『慶州舍羅里遺蹟Ⅲ』.
- 李殷昌, 1975, 「味鄒王陵地區 第10區域 皇南洞 第110號古墳 發掘調査報告」『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査報告』第1輯,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 李熙濬,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嶺南考古學』17, 嶺南考古學會.
- , 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한국고고학보』59, 한국고고학회.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4.
- 昌原大學校博物館, 2006, 『蔚山 中山里遺蹟Ⅰ』.
- 崔秉鉉, 1981,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韓國考古學報』10・11, 韓國考古學會.
- , 1983, 「古新羅 鎬子考」『崇實史學』1, 崇實大學校 史學會.

- ,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 2000, 「嶺南地方 考古學資料의 編年-4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1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 2012, 「신라조기양식토기의 설정과 편년」 『嶺南考古學報』63, 嶺南考古學會.
- , 2013,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성립」 『고고학』12-1, 중부고고학회.
- ,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90, 한국고고학회.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釜山大學校史學會.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04, 『昌寧 東里 遺蹟 I-창녕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내 유적』.

-中文-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文物出版社.

董高, 1995, 「公元3至6世紀慕容鮮卑, 高句麗, 朝鮮, 日本馬具之比較研究」 『文物』1995-2, 文物出版社.

黎瑤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1973-3,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粹』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1997, 「朝陽王子墳山墓群 1987, 1990年度考古發掘的主要收穫」 『文物』1997-11, 文物出版社.

, 1997, 「朝陽十二台鄉磚廠88M1發掘簡報」 『文物』1997-11,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北票市文物管理所, 2004, 「遼寧市北票喇嘛洞墓地1988年度發掘簡報」 『考古學報』2004-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遼寧省博物館文物隊 外, 1984,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1984-6, 文物出版社.

于俊玉, 1997, 「朝陽三合成出土的三燕文物」 『文物』1997-11, 文物出版社.

田立坤, 1991, 「三燕文化遺存的初步研究」 『遼海文物學刊』1991-1,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 2002, 「袁台子壁畫墓的再認識」 『文物』2002-9, 文物出版社.

, 2012, 「古鏡新考」 『三國時代 國家의 成長과 物質文化 I』,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회의 문집, 韓國學中央研究院共同研究팀.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養工作隊, 1983, 「安養孝民屯晉墓發掘報告」 『考古』1983-6, 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1979-1, 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日文-

諫早直人, 2008, 「古代東北アジアにおける馬具の製作年代-三燕・高句麗・新羅-」 『史林』91-4, 京都大學文學部史學研究會.

,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雄山閣.

東潮, 1988, 「高句麗文物に關する編年學的一考察」 『橿原考古學研究論集』10, 吉川弘文館.

, 1993, 「朝鮮三國時代にける横穴式石室墳の出現と展開」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47, 國立歷史

民俗博物館.

,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文化』, 中央公論社.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神奈川考古』6, 神奈川考古同人會.

馬目順一, 1980, 「慶州飾履塚古新羅墓の研究」『古代探叢』, 瀧口宏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叢.

桃崎祐輔, 2006, 「馬具からみた古墳時代實年代論」『日韓古墳時代の年代觀』, 歷博國際研究集會, 國立歷史民俗博物館・韓國國立釜山大學校博物館.

白井克也, 2003, 「馬具と短甲による日韓較差編年-日韓古墳編年の並行關係と曆年代-」『土曜考古』27, 土曜考古學研究會.

緒方泉, 1985, 「高句麗古墳に關する一試案-中國集安縣における發掘調査を中心として-」『古代文化』37-1・3, 財團法人 古代學協會.

小野山節, 1966, 「日本發見の初期馬具」『考古學雜誌』52-1, 日本考古學會.

小田富士雄, 1979, 「集安高句麗積石墓出土遺物と百濟・新羅の遺物」『古文化談叢』6, 九州古文化研究會.

申敬澈, 2009, 「韓國考古學資料からみた日本古墳時代年代論の問題點」『日韓における古墳・三國時代の年代論(Ⅲ)』, 第3回國際學術會議, 日本國人間文化研究機構國立歷史民俗博物館・大韓民國國立釜山大學校博物館.

鈴木一有, 2014, 「11 七觀古墳出土遺物からみた鋳造技法導入期の實相」『七觀古墳の研究-1947年・1952年出土遺物の再檢討-』, 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朝鮮總督府, 1937, 『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查報告』〈昭和九年度古蹟調查報告〉第一冊.

中山清隆・大谷猛, 1983, 「高句麗・地境洞古墳とその遺物-馬具類を中心として-」『古文化談叢』12, 九州古文化研究會.

穴澤咏光・馬目順一, 1973, 「北燕・馮素弗墓の提起する問題-日本・朝鮮考古學との關聯性-」『考古學ジャーナル』85,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1984, 「安養孝民屯管墓の提起する問題(I)(II)-現存最古の鍔子を含む馬具をめぐって-」『考古學ジャーナル』227・228, ニューサイエンス社.

穴澤咏光, 1988, 「五胡十六國の考古學(上)」『古代學評論』創刊號, 古代を考える會.

The Development of Early Stirrups in Ancient Northeast Asia

Choi, Byung-Hyun (Soongsil University)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stirrup, from its emergence during the Former Yan period, to the development of early stirrup of the Goguryeo and Silla, reveals that short-necked and long-necked stirrups co-existed from the 4th century CE, with each type following its respective path of development.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short-necked stirrup took place in the Korean peninsula (Silla and Gaya) rather than in China, whereas the long-necked stirrup of the Former Yan period developed into the early long-necked stirrup of Goguryeo and Silla. In other words, the short-necked and long-necked stirrup belong to different categories in terms of both production method and developmental history.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previous attempts to distinguish the two as belonging to the 'old type' and 'new type' are problematic; they were based upon assumptions that were wrong from the beginning.

The Feng Sufu (馮素弗) Tomb theory (the notion that the stirrups of Korea and Japan cannot be older than 415 CE based on the stirrups from the Feng Sufu Tomb) was based upon this problematic assumption. However, even though it was soon proven to be wrong, the theory was persistently maintained by some scholars as a means of supporting the Goguryeo southern campaign theory, and therefore came to be established as fact. As a result of this, the chronologies of the archaeological remains of Silla and Gaya, as well as that of Silla and Gaya tombs, evidence a time lag of approximately 50 years.

It can be argued, however, that if we break away from the preconceptions set by the Feng Sufu Tomb theory, and attempt a chronological study of Silla pottery and stirrups accordingly, then the dates obtained will present a good fit with the following dates:

- The dates of Incipient Silla style pottery obtain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Wa style pottery from Wolseong-lo Ga-31 Grave in Gyeongju and the Chronology of haeiki ware of Kofun period in Japan
- The dates of Anyang Filial Damintun(孝民屯) Tomb and Chaoyang Yuantaizi(袁台子) Tomb of the Former Yan period and the dates of the earliest Silla stirrups
- The dates of Early Silla style pottery obtain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endrochronology dates of the TG232 type early sueki ware of the Kofun period in Japan
- The date of the Southern Mound of Hwangnam Daechong obtained through cross-dating with the tombs and horse gear from the sites of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and Goguryeo tombs
- The dendrochronology dates of the early TK73 type sueki ware of Japan.
- The date of the Northern Yan Feng Sufu Tomb
- The dates of the Shingai(新開) Tomb and Shichikan(七觀) Tomb of Japa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se new dates fit well with the chronological framework which incorporates other types of archaeological material and therefore can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se other types of archaeological material from Korea, China and Japan.

Key words : Goguryeo southern campaign theory, Feng Sufu Tomb stirrup theory, short-necked stirrup, long-necked stirrup, Former Yan, Northern Yan